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 昌 九

韓國 開化期 以後 美容패션에 관한 史籍
考察

A historical investigation into beauty fashion
after the Korean Enlightenment

2003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金 光 熙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 昌 九

韓國 開化期 以後 美容패션에 관한 史籍
考察

A historical investigation into beauty fashion
after the Korean Enlightenment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 藝術學 科

扮裝 藝術學 專攻

金 光 熙

金光熙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3年 12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개화기 이후 한국 미용문화 중 헤어패션의 변천을 연구하기 위하여 상고시대와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헤어패션을 간략히 살펴보고, 개화기 이후를 중심으로 2000년대까지의 헤어패션을 살펴본다.

미용문화 중 헤어스타일의 시대적 변화와 미용의 발전 요인 및 여성 의식이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시대적으로 그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헤어스타일의 꾸밈은 상고시대부터 그 기원을 살핀다. 상고시대의 청동기 유물을 살펴보면, 벌써 수발의 양식이 존재했음을 볼 수 있고,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그려진 여성의 머리양식이 신분에 따라 다양함을 발견 할 수 있다.

만주 및 한반도에 나라를 개국한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기마민족을 바탕으로 하여, 상투를 하였던 민족으로,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상투, 여성들은 변발 및 속발과 미발에 의한 머리모양을 하였음을 고서(古書), 회화, 벽화, 유물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은, 하, 수, 송, 명, 당, 청 등의 여러 국가와 문화교류를 하면서 머리양식과 함께 의상도 함께 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유물 중에 벽화, 토용, 역사서와 비녀, 금관, 건, 각종두발장식용품 등을 사용한 흔적을 통해서 상고시대 보다 진보된 머리양식임을 알 수 있으며,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다양한 머리양식이 나타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신라가 당나라와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귀족중심으로 당의 머리양식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몽고침입으로 인하여 원의 머리양식인 辮髮胡服을 귀족 소수 계층에 있었으나, 원의 세력 약화 후 즉시

전통적인 머리양식으로 환원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의미로 볼때 민족 전통의 머리양식은 민족국가의 존립과 민족구분의 이정표이며, 민족정신이며, 각 민족 집단간의 연대의식의 상징이기도 한다.

몽고 침입 이후에도 머리양식은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입하였으나, 다른 문화와 동화됨이 없이 중국과 다른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 머리에 기본을 둔 머리양식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머리양식의 변화는 장신구, 의상과 함께 더불어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우리나라의 전통과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게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고려시대 이전의 시대보다 일반인의 화장문화는 유교적인 제도에 의해서 약화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머리양식과 머리장신구는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조선 회화와 유물로 능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유럽의 산업혁명과 세계적인 시대적 조류에 의하여, 조선의 고종황제 때에 한국의 머리모양이 단군 이래 대 변혁을 맞게 되었다.

단발령으로 조성대신과 백성들의 반발은 있었으나, 고종황제의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교육정책과 선지자 및 외국 선교사들의 교육사업으로 급속히 단발이 보급되었고, 조선 여성들에게도 프랑스의 선진미용이 조선에 보급됨으로써 서서히 여성들의 머리모양도 현대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조선의 교육정책에 의하여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대의 다양한 헤어패션이 유행하게 되었고, 여성 복식 또한 서구화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머리양식은 고종황제 시대의 개화기 이후 서구와의 빈번한 문화 교류에 의해 조선 여성들이 외국에서 서양 머리를 하고 귀국을 함으로써 서서히 일반 여성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서구의 문화가 급격히 밀려와 현대 헤어스타일을 수용한 여성들

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국내 여론에서도 전통적인 긴 머리보다도 활동성이 편한 짧은 퍼머머리를 권장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변화에 의해 더욱 더 현대미용이 발전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유엔의 참가로 미국의 문화의 영화 및 잡지 등이 소개에 의하여 영화 속의 인기 여배우의 헤어스타일이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유행을 하였고, 전후 국내에서도 여성잡지가 창간되고 영화가 대중화되면서 인기여배우의 헤어스타일을 모방하여 유행을 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

19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한국 경제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해외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의 영화발전과 더불어 영화 제작시 해외로부터 헤어스타일 및 의상을 참고로 하여 많은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국내의 유행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로 이어지면서 경제발전에 힘입어 해외로 미용연수를 나가기 시작했으며, 세계적으로 미용가인 비달사센의 스타일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일반 대중에게 유행하였다. 70년도는 커트의 유행이 대단하였고, 커팅에 의한 헤어디자인의 다양화에 의하여 여성개성을 표현하는 헤어패션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리고 경제개발 추진으로 여성의 노동력이 확대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86 아시안 게임, 서울올림픽 등과 국제적인 행사로 국내인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됨으로써 국내의 헤어디자이너들이 국제적인 헤어쇼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헤어디자이너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해외로 미용유행의 붐과 미용 도서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0년대로 오면서 그 경향은 더욱 짙어진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미용도서들이 수입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유학을 함에 따라 더욱 미용의 패션이 발전을 보게 되었고, 93년부터 대학교에 미용학과의 설립이 시작되면서 미용분야는 더욱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0년 중순부터

해외 유학파들의 귀국으로 헤어패션이 더욱 다양화 되었고, 지금까지 스타일 위주로 외국미용 텍스처가 소개 되었던 것이, 이들로 인하여 미용이론과 전문화된 미용기술보급과 도서발간으로 국내 미용 발전에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2000년에는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의 정보혁명과 통신혁명이 시작되었으며, 미용산업에서도 크다란 변화가 일고 있으며, 정보의 동시화로 세계의 정보는 좁아지게 되었고, 세계적 유행의 패턴도 더욱 짧아지고, 미용패션 산업이 더욱 다양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질 추세이다. 이렇게 연대적으로 헤어패션이 변화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화기 이후 여성들의 교육증대와 국내산업의 발달로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이 시대적으로 늘어나면서, 미(美) 추구의 필요성과 신문, 잡지, 영화, TV, 영화, 인터넷을 통한 대중문화의 전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미용발전은 개화기 이후 선진기술을 배우겠다는 전·현직미용사들의 배움의 열정과 노력에 의하여, 한국미용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추구한 결과로 국내 미용기술이 외국 선진미용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진미용기술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目 次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II 한국 개화기 이후 현대미용 발전의 사회적요인	5
1. 단발령과 국내 정치적 영향	6
2. 미용학과 설립과 국외 사회적 영향	15
III 개화기 이후 한국 미용패션에 관한 사적 고찰	23
1. 개화기 이전.....	23
1) 삼국시대이전.....	23
2) 고 려.....	32
3) 조선시대.....	37
2. 개화기 이후	44
1) 단발과 양머리의 유행(1885~1930).....	44
2) 여성단발시대(1921~1930).....	46
3) 마셀웨이브와 전발유행 (1931~1944).....	48
4) 해방과 파마의 유행(1945~1950)	52
5) 한국전쟁과 서구의 영향(1950~1960)	55
6) 앵파이어 및 히피스타일의 유행(1961~1970).....	58

7) 비달사순 스타일의 유행(1971~1980)	61
8) 헤어패션의 개성화와 미용도서 출판의 활발(1981~1995).....	65
9) 패션헤어시대(1995~)	72
 IV 한국 미용패션의 발전에 연관된 해외 교육기관의 영향.....	75
1. 현대미용의 소개-마리 루이스.....	75
2. 세계 미용패션 교육의 세계적 표준화-비달사순.....	80
3. 패션헤어의 다양화-토니엔가이.....	90
 V 結 論	102
 參考文獻.....	107
 ABSTRACT.....	111

그 립 목 차

그림 1. (동아일보)1931년 7월,브나로드운동.....	94
그림 2. 단발하는 모습.....	94
그림 3. 마리-루이스.....	94
그림 4. 마셀웨이브 스타일.....	94
그림 5. 시술자; 로망(프랑스.파리).....	94
그림 6. 가와시마 후미오 :작품.....	95
그림 7. PIECE by PIECE.....	95
그림 8. 안악 제3호분.....	95
그림 9. 여성 창간호 표지.....	95
그림 10. 게시판.....	95
그림 11. 롤 스타일.....	95
그림 12. 아이롱머리.....	96
그림 13. 1940년대말 여성의 머리모양.....	96
그림 14. 맨더린라인과 로코코라인.....	96
그림 15. 60년대 헤어스타일.....	96
그림 16. 소피스타일.....	96
그림 17. The Shape (1959)	97
그림 18. Nancy Kwan (1963).....	97
그림 19. Grace Coddington (1963).....	97
그림 20. Five Point (1964).....	97
그림 21. The Asymmetric (1964).....	97
그림 22. Geometric cut (1965).....	97
그림 23. Acute Angle (1966년).....	97
그림 24. A-line Bob (1966).....	97

그림 25. The Halo (1970).....	97
그림 26. The Brush (1972).....	98
그림 27. The Beret (1975).....	98
그림 28. Philappa (1976).....	98
그림 29. Straight Shake (1977).....	98
그림 30. Isadora (1969).....	98
그림 31. Peggy Moffat (1966).....	98
그림 32. 토니 앤 가이 헤어스타일.....	99
그림 33. 평행보브.....	100
그림 34. 스파니엘	100
그림 35. 이사도라.....	100
그림 36. 머쉬 룸.....	100
그림 37. 숏트 멋쉬룸.....	100
그림 38. 스텝 보브.....	100
그림 39. 그라데이션보브.....	100
그림 40. 숏트 보브.....	100
그림 41. 스윙 뱅그.....	100
그림 42. 웻 지.....	101
그림 43. 레이어드 컷트.....	101
그림 44. 룡 포인트.....	101
그림 45. 리젠트.....	101
그림 46. 비비드 컬.....	101
그림 47. 엘레강스 컬.....	101
그림 48. 콘케이브 컷트.....	101

I. 서론

1. 연구목적

헤어패션은 인간의 본능적인 미 표현의 욕구와 함께 역사 흐름 속에서 변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어떠한 형태로든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과정을 겪으면서 헤어패션이 변화해 온 것이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표현되어온 헤어패션은 그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해 왔다. 한국의 헤어패션은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현대미용이 도입된 것은 개화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개화기에 들어온 서양문화는 전통적인 헤어패션에서 서구의 산업혁명으로 산업기술이 발달한 바탕 위에 상업적이고 현대화된 헤어패션을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현대미용의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근대화라는 문화적 조류에 의해 조선에서도 개화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사회, 정치, 문화, 산업 기술 등 모든 분야에 서구의 현대문명이 도입되던 시기였기에, 고종황제의 교육정책에 의해 신여성의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통 미용문화는 현대로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다. 특히 개화기에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사회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여성의 변화는 급속히 이루어진다. 조선후기 고종황제의 교육정책에 의하여, 여성의 신교육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정규교육 외에도 각종 강습회, 야학, 선교활동 등의 교육 계몽운동과 외국과의 교류관계가 빈번해지면서, 여성의 해외 유학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사회현상에 의해 나타난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에 의해 사회의 불합리한 전통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신여성 계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신여성’이라고 불렀다.

신여성들은 당시 국제적 조류와 국내 사회 현실을 인식한 지식인들이었으며, 여성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 계몽운동을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한 새로운 계층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이처럼 교육받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여성의 사회적 자아를 형성시켰고,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과 사회활동은 여성의 미용문화와 복식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에서 미용문화는 신여성의 출범과 동시에 여성에게 커다란 의식변화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들의 노동참여의 기회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직업을 갖게 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현대미용이 도입 초기 당시에는 소수층 사람에 의해 가능했던 현대미용이 경제적 풍요와 함께 일반여성에게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1960년부터 고도로 성장한 경제로 영화, TV가 일반화되고 이와 함께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여성의 헤어패션을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고, 헤어연출 기법도 다양화 되었다.

개화기 이전의 전통적 헤어스타일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헤어패션이 서구의 현대미용의 영향으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헤어패션의 변천사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시대흐름을 살펴보면, 새로운 국가가 성립 할 때마다 머리양식과 의복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화기 이후 현대화의 바람이 불면서 여러 국제적 상황에 따라 헤어패션도 변화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국의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첫째로는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배경 둘째로는 서울올림픽에 의한 여행자유화 그리고 셋째로는 해외 유명 미용가에 의한 영향 등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여성패션의 변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개화기 이전의 헤어패션을 시대적 국가별로 고찰하고,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화기 이후 한국의 현대미

용의 시점인 1885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미용의 흐름과 사적인 것을 고찰하려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현대미용이 개화기부터 서양문화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전통 헤어스타일에서 현대미용의 헤어패션으로 변모해가면서, 이 시대적 변화와 사회 현상 및 각 시기별 헤어패션이 유행하는 유형등과 연결지어 어떻게 변화를 겪는지를 고찰하여 개화기 이후 전개되는 한국 헤어패션에 대한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각 시기별로 특징을 살펴 헤어패션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조명하는데 의의를 둔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한국의 헤어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시대를 개화기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살펴본다. 조선 고종황제 시대의 개화기는 서양문화의 소개와 함께 급격한 사회적 변모를 겪던 시기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혼란기에 의한 개화는 고종황제의 교육정책으로 여성들의 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헤어패션과 복식의 기존의 전통적인 것과는 달리 변화를 겪는다. 그리하여 개화기는 한국의 미용문화에 변모를 가져온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개화기의 헤어패션을 살피기에 앞서 상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헤어양식을 간략히 개화기까지 각 시대를 한정하여, 그 역사적 특징을 옛고서 및 벽화, 유물을 통하여 고찰하려 한다. 이를 연관선상으로 하여 개화기 이후 헤어패션의 변천요인을 살펴보고, 헤어패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원인을 분석하려 한다. 그리고 단발령, 군사혁명, 서울올림픽, 국내외 유명 미용 교육기관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헤어패션의 변화된 특징을 중심으로 헤어패션의 변천 양상을 규명하려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대별로 그 문화적 특징을 대중문화와 헤어패션의 유행과의 영향 관계를 도서, 신문, 잡지, VTR 등에 수록된 인쇄물을 바탕으로, 한국 헤어패션의 변모 양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영향관계를 헤어패션과 연결하여 한국 현대 미용의 헤어패션에 관한 변모 양상을 고찰하려 한다. 개화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전통머리양식의 단절 이후 현대 헤어패션인 외래 미용문화의 영향을 어떻게 수용, 발전하여 왔는지도 규명한다.

II 한국 개화기 이 후 현대미용 발전의 사회적요인

한국의 현대미용의 발전의 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정치적 요인 중에 1984년의 단발령의 시행과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미용사의 대량 양산하여 현대미용을 일반화 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아카데미에 의하여 한국미용을 질적 향상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레벨을 올렸다는 것이다. 정치적 요인으로서는 세계 1, 2차 전쟁으로 세계의 문화 조류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강대국들의 시장 식민지 개척으로 아시아의 여러국가들도 이 세계의 회오리 바람을 피하지 못하였다. 당시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조선에서의 개혁파들은 외국의 문물을 보고 조선도 외국의 문물을 받아 들여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유길준등 개혁파들은 선진 열강들처럼 단발을 시행하여 조선의 개혁의 의지로 삼고자 하였으나,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로 인하여 단발령이 일본에 대한 반발의식 즉 반일사상으로 변질 되었으나, 그 후 조선의 선지자들에 의해 교육 계몽운동에 힘입어 다시 조선을 부국강병의 의지에 불탄 많은 조선국민들이 스스로 단발을 하여 개혁의 의지에 동참하였다.

이처럼 역사의 소용돌이에서부터 시작하였던 사건을 시작하여, 정부에서 국민들의 헤어스타일에 간섭 및 계몽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간섭보다 각 사람들이 속해있는 사회적 구조의 관습 및 소속의 규정에 의해서 머리스타일을 규제 단속을 하고 있다.

조선실록을 참조하여 보면 영.정조시대 헤어스타일에 언급한 것이 많은데 이는 정부행정관리 대상이었다. 그리고 군사정부도 국민들의 헤어스타일을 단속 및 직업여성들 대상으로 미용, 양재 등 직업훈련교육을 시작하였고, 전두환대통령 당시에 사회정화 정책 일환으로 또 한번 직업여성과 시설보호소 여성 및 가출소녀 대상으로 미용교육을 실시하여 자력갱생을 지도하였다.

관리 대상층의 여성뿐 아니라 IMF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질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실업자 구제목적으로 고용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들 대상으로 국가보조형식으로 각 지방노동청에 위임 사설학원에 교육을 하여 많은 미용인들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미용아카데미에 의하여 미용기술의 보급에 의한 것이다.

한국의 현대미용의 기술은 조선말 일본 마리-루이스의 미용학교의 영향에 의하여 마셀웨이브 및 전발(電髮)이 소개됨으로써 현대미용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후 나라가 안정되고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계 유명 미용 학교인 동경미용전문학교, 야마노미용전문학교, 비달사순아카데미, 토니앤가이아카데미 및 해외도서의 보급에 의해서 한국 현대미용의 발전을 급진전 시키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송부자아카데미의 송부자원장에 의해 미용의 이론과 실기를 접목한 비디오 시리즈를 출판하여 국내 미용사들이 쉽게 선진미용을 습득하게 하여 한국미용의 미디어 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해외여행자유화의 조치로 인하여 미용유행의 붐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미용학과가 설립되었는데 상기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국의 현대미용의 발전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분류 분석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1. 국내 정치적 요인

조선후기 제 3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된 1895년 12월 30일에 태양력 사용과 함께 연호를 건양으로 역법을 변경하고, 동시에 고종의 조칙으로 단발령을 선포한다고 하였다. 당시의 집권자들은 우선 양력을 쓰도록 결정하였고, 동시에 단발령을 내려 낡은 옛 풍속을 고침으로써 국민생활에서부터 새 시대를 맞이 하려고 했다.

이해 2월에 단발령을 시행하면서 고종황제는 숄선하여 단발을 하기로 하

였다. 그리고 고종황제는 “짐이 단발하여 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하고자 하니 신들도 짐의 뜻을 따라 만백성과 뜻을 같이 하도록 하라”는 칙서를 내렸다.

칙서를 내리고 나서 고종황제는 머리를 단발하였으며 새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누구보다 앞장서고 싶어 했다.

신하들에게도 단발할 것을 권하였다. 단발령에 관한 고시는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다.

「머리를 깎으면 위생상 좋을 뿐아니라 일하는데도 편리하고 또 성상께서 부국강병의 방법으로 솔선 공행(躬行)하시어 표본을 보이셨으니, 대조선 백성들은 이 성의를 따라 단발토록하라.」 명하였다.

또한 의관제도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一. 상복은 전날과 같이 흰 빛깔도 무방하다.
- 二. 망건은 쓰지 말도록 한다.
- 三. 의관제도는 외국제도를 따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양력을 사용하기로 했다. 고종황제는 단발, 의복개혁, 양력시행을 하여 외국의 좋은 제도를 참고하여 조선을 근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백성들의 생활 깊숙이 젖어들었던 낡은 관습이 제도가 변형되었다고 하루 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었다.

더욱이 오랜 전통적인 보수 관념이 뿌리 깊은 양반계층은 이에 반기가 심하였고, 고종황제의 단발 소식을 들은 학부대신 이도재는 관직을 사직하고 단발령을 반대하였다.

조정에서는 경무사 허진으로 하여금 길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머리를 단발하게 되었다. 경무사 허진은 경찰관 몇십명을 선발하여 온 거리에 흩어져 지나가는 사람들을 단발하였다.

이도재는 상소문에 개원은 한낱 허명에 불과하고 더욱이 단발령이란 것을 내려 단군·기자조선이라 전래해온 4천년의 풍습인 상투를 없애는 것은 흉

흥한 민심을 더욱 자극시키는 일밖에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나라가 무력으로 연경을 점령하고 한편으로 강제로 제두변발(除頭辮髮)하게 하자, 장발적이 일어나 수십년 간 싸움이 계속되다가 겨우 진정됐는데 이것을 거울로 삼아 즉시 중지케 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조정에서는 이도재의 이러한 상소문이 올라오자 내각은 그것을 한낱 낡은 양반들의 반동으로 몰아 일소에 불이고 오히려 제두관(除頭官)을 임명하여 각처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이발기구를 가지고 지방각처로 찾아 갔다. 그것은 새 시대를 알리려는 정부의 노력이었으나, 국민들이 싫어하는 하나의 강제이기도 했다. 이렇게 정부에서 각처에 제두관까지 파견하여 단발을 강행하자 마침내 유림들이 들고 일어섰다.

유교의 사상을 국시로 삼았던 조선인지라 유림들의 반대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유학자 최익현이 ‘일찍이 공맹지도의 가르침에 신체발두는 수지부모라 감히 이를 훼손치 않음이 효도의 시초이거늘 어찌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깎으란 말이요.’ 하면서 켈기하자, 조정 내각에서는 회의한 끝에 그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 버렸다. 아무래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일이 확대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한 유학자일뿐더러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함부로 처단할 수는 없었고, 다만 단발하기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회유(懷柔)해도 최익현이 좀처럼 굽힐 것 같지 않자 조정에서는 최익현의 영향을 두려워하여 일본인들을 시켜 그 문도(門徒)들과 함께 대마도로 유배하였다.

최익현이 대마도로 유배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충청도의 유인석은 의병을 모으고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자는 구호를 내세워, 공맹지도를 업신여기는 개화파 내각을 타도하려고 일어섰다. 단발령은 마침내 전국을 혼란 속에 몰아넣었다.

단발령에 대한 유림의 반대는 오랜 풍습에 젖은 백성들의 생활감정과 영합

되어 날로 기세가 높아 갔으며, 더욱이 일본인의 국모 살해에 대한 복수심이
젖어들어 또한 그 당시의 유학자의 대표적 존재였던 면암(勉庵) 최익현을 체포
한 사실이 알려지자 격분한 민중의 마음은 더욱 불붙었다.

단발령의 강행에 반감을 가진 민중은 자기네의 행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
는 것이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었고, 다만 조선의 고유한 풍습을 일본의 앞
잡이가 파괴하려 든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단발령이나 양력 사용을 반대하는 민중들의 반항은 확실히 이 나라의 근대
화를 저지하는 사실임에는 틀림없었으나, 그러나 민중들의 감정이 조정의 그
런 혁신정책과 유리되어 있었다는 것은 더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시대의 어수선했음 속에 고종황제가 궁궐을 빠져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
로 파천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있다가 총리대신인 김홍집, 농상공
부대신 정병하, 어윤중 등이 흥분한 군중에게 살해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대신 집권한 친로·친미의 정권은 급기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단
발령을 해제하고 의병들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렇게 되자 민중의 흥분도 차차 시고 친위대의 진압도 주효하여 의병의
세력도 수그러졌다.

그러나 그 뒤 광무개혁때 단발령 문제는 다시 거론이 되어 1902년 8월에
군부 경부청에 소속된 군인 경찰 관원 등 제한된 범위의 인물들에게 한하여
강제 단발을 명하였으며 그 해 10월에 가서는 이도재 등 정부 대신들에게
도 역시 이러한 명령이 하달되어 이에 불충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참수하게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단발령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발을 하는 사람은 많아졌으며,
고종황제는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근대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많은 애국 선지자 및 외국 선교사들의 학교 설립에 의하여 신학문을 고취시
켜 조선 근대화의 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당시 한국의 근대교육기관으로 1883년 8월초에 독일인 필렌돌프와 영국인 할리팩스(T.E. Hallifax)등이 영어학교를 개교한 뒤, 1886년 9월에는 육영공원(育英公園)이 설립되고 최초의 신식학교로서의 체제를 갖추어 영어 수학 역사 자연과학 정치학 지리 등의 서양신학문을 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1910년 당시는 전국적으로 사립학교가 약 3,000여개가 건립되었다.

당시의 사립학교는 교육과목을 교육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몽과 민족정신, 역사 의식, 국가관 등의 고취 및 자립정신의 선양 등을 아울러 주입시키는데 힘썼다.¹⁾ (그림-1)

김홍집 내각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 조치로 시행한 단발령은 당시 성공은 하지 못했다 하나, 이를 영향으로 조선이 근대화에 하나의 계기를 조성하였다. 1940년대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단발하였는데, (그림-2) 이는 많은 열강으로부터 조선의 독립과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하여 모두가 의식개혁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단발령은 남성들에게만 시행되었으나,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신여성 및 기생들 사이에서부터 머리를 자르고 하여 헤어스타일이 서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까지도 미용을 배울 수 있는 학교는 몇 되지 않았고, 미용실도 도시를 중심으로만 존재하였다가 군사혁명이 일어난 후 군사정부에서 직업여성을 미용사로 양성하면서부터 일반 서민에게 더욱더 손쉽게 다가서게 하였다.

이러한 군사정부는 1960년대의 5.16군사혁명으로 당시 국내의 어수선한 정치 상황과 빈곤에 허덕이는 경제를 개혁하면서 국내의 정치, 사회, 문화, 의생활 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미용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여성들에게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시대에 군정정부의 여성 일자리

1) 국사교육연구회 (1991년) 『한국사개설』 형설출판사 P.P. 227~ 228.

창출에 의해서 수많은 직업여성들의 직업의식에 변화를 가져 왔으며 군사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여성들의 직업으로는 방직공장, 수출자유지역의 생산요원 및 양장, 면도사, 미용 등 많은 직업군을 창출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에 유익한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개혁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5.16 혁명'이 시발점이었으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시발점이었다. 당시 혁명군은 사회정화 일환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 사회악의 척결 대상으로 지목된 것중 매춘부도 4411명이 구금 체포되어 강제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고, 다방, 찻집, 바아(bar), 댄스홀, 등도 문을 닫아야 했다.

그리고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 구조적인 대혁명이 시작되면서 군사정부는 한국에 계속 답습되어온 오래된 사회의 악과 퇴폐한 습성, 영원히 벗지 못할 것 같은 가난과 어울려져 있는 어려운 국가현실을 정치혁명, 사회혁명, 윤리혁명, 산업혁명을 실현하고자 혁명공약을 선포하고 대 개혁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1년 11월9일 법률 제 771호로서 공포 시행된 '윤락행위 방지법'은 '공창제도 폐지령'이 단순히 유곽제도를 해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령인데 비해, 군사정부는 이를 사회의 악으로 단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매춘 행위를 방지 폐지하려는 의도와 사회정화와 여성들의 건전한 직업군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이 법률은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에 의한 정권장악 직후에 제정되었다.

이는 한국전쟁에 의한 전쟁 미망인의 증가와 생활의 궁핍으로 인하여 매춘 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의 풍기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풍기정화법을 제정 공포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 법률의 독특한 점은 제7조이하의 '보호지도소'에 있다고 할 수있다. 즉 ' ① 국가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 및 환경 또는 행실로 보아 윤락행위를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이하 요보호여자'라고 함)를 선

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주요도시 기타 필요한 지역에 보호지도소를 설치한다.

② 지도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라고 하여 상담에 응하여 필요한 지도를 행한다. 그리고 조사 파악하고 직업의 알선을 실시하며 가족 및 기타 연고자에게 귀환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8조에는 '국가는 요보호여자에 대해 자립 후생의 정신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조치로서 '환경 또는 행실로 보아 윤락행위를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보호지도소'라는 수용소에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게 인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는 요보호여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에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행정의 감독하에서 직업여성들의 현 직업에서 전업을 하기위하여 즉 타 건전한 직업으로 자력갱생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시설인 셈이다. 여기에서의 직업여성 즉 비건전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기본적으로 요보호여자이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감시되거나, 보호 수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군사정부는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군사정부의 시각에 매매춘은 사회발전의 악으로 보았고, 사회의 악은 척결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그 시행 방법으로 군사정부는 직업여성들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군사혁명군은 도박 매춘들을 사회경제 발전의 악의 원인으로 보고 뚜쟁이 440명이 체포되었고 매춘부 4411명을 구금하여 윤락행위방지법 ' 제7조 ①항에 의거 국가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 및 환경 또는 행실로 보아 윤락행위를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이하 ' 요보호여자'라고 함)를 선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주요도시 기타 필요한

지역에 보호지도소를 설치한다.²⁾라는 법조문에 의거하여 전국 보호지도소에 분산 배치하여 보호하였다.

유홍가의 여자들이 보호소에 구금되고 경찰의 심한 단속에 다방 찻집, 바, 댄스홀, 카바레 등 유형업소는 문을 닫아야만 했다.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요보호인물로 낙인 되어, 보호 지도소에 보호되고 있던 여자들은 윤락방지법 제7조 2항과 제8조에 의거 지도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³⁾ 라고 하여 상담에 응해서 필요한 지도를 행하였다.

그리고 조사 파악하고 직업의 알선을 실시하며 가족 및 기타 연고자에 귀환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 등을 열거했다. 또 제8조에는 국가는 요보호여자에 대해 자립후생의 정신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한다.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시 군인과 경찰이 동원되어 매춘소굴에서 직업여성들을 체포 구금하여, 각 개인마다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부에서 직업교육을 시켰다. 직업훈련 교과목으로는 양장, 미용, 면도사 등등의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였으며, 많은 인원을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한 공간이 미흡할 경우 사설학원에 위탁하여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기술 습득을 원하지 않고 공장에 취직을 원하는 사람은 방직공장 및 여성의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회사에 취업을 시켰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탈하는 자가 없는지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 감시 하였다. 혹 부모에게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다시는 매매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부모의 책임아래 잘 보호하겠다는 각서와 함께 집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였으나, 부모에게 연락하기를 꺼려 그 숫자는 적었다.⁵⁾ 하였다.

2) 1961년 11월09일, 법률 제 771호로서 공포, 윤락행위 방지법 제 7조

3) 가와무라 미나토, (2002년) 『기생』 유재순 옮김 현대의 기생 소담출판사 P. 301.

4) 가와무라 미나토, (2002년) 『기생』 유재순 옮김 현대의 기생 소담출판사 P. 301.

5) 김영만 : 인터뷰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2000년 12월 25일)

이때 직업여성으로 종사하다 구금 체포되었던 4411명의 여성들이 군사정부에 의해 양장, 미용, 면도사 등의 기술을 배워서 많은 사람이 생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1960년대 군사혁명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미용사가 대량으로 양산되어 당시에 흔하지 않았던 미용실이 4천여명의 여성들 중 미용교육을 받은 수많은 여성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어 미용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특히 직업여성으로 직업훈련을 받아 미용에 종사하던 많은 이 당시의 사람들 중 옷차림이나 말이 천박하게 보이는 종사자가 많아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이나 외국의 미용사의 차림을 살펴보면 한국 미용사의 의상 분위기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미용도입 초기부터 미용학과의 기준을 중.고졸 이상으로 시행 하려고 하여, 사회적 인식이 좋았던 것에 비해, 한국은 미용이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직업여성, 보호지도소의 관리대상 여성들의 자력갱생의 직업훈련으로 정책적으로 미용사를 양성하였기에 인식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미용인 양성 교육은 혁명정부 이 후 새로운 정권이 나타날 때마다 나타났다.

첫 번째는 혁명정부에 의해 사회악 척결이라는 윤락방지법을 바탕으로 미용기술의 습득을 반강제로 시행하여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하여 국가보조로 교육을 하여 많은 미용사들을 양산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두환대통령의 사회정화운동이란 명분 아래 유흥가의 여성 및 가출소녀를 보호하는 보호소에서 미용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을 새로운 삶을 찾도록 유도하였으며, 셋째는 김대중대통령 당시 IMF로 인하여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전 국민 희망자들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여 실직자의 재직업교육을 실시하여 미용사를 대량으로

양산하였다.

정부에서는 계속하여 매춘 및 가출소녀의 자력갱생을 목적 등으로 미용사를 양성하였기 때문에 타 직업에 비하여 학력이 낮고 말과 의복의 이미지가 유흥가의 스타일을 계속 답습하는 사람이 많아, 일반인에게 인식이 좋지 않아 인권적 대우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미용을 배우는 이들은 가족들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IMF 이후 일반 사람들의 인식전환으로 인기직업으로 부상하였고, 미용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미용학과가 설립되었고, 석사과정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한성대 예술대학원에서 헤어디자인과가 생겼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인식전환으로 차츰 일반인들에게 미용이란 직업군의 인식이 좋아지게 되었다.

2. 미용학과(대학내) 설립과 국외 사회적 영향

국내에서도 1980년대는 경제적·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1986년 개최된 아시아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과 국제적인 행사는 해외여행 자유화, 수입자유화와 같은 개방정책과 함께 국제적인 교류는 물론 외국과의 문화 접촉 기회를 증가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미용계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적인 헤어쇼가 개최되었고, 국내 헤어 디자이너들이 해외 헤어쇼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헤어디자이너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로써 국외와 국내간의 패션 경향의 시차를 최소화 시켰다. 또한 아시아 게임과 서울올림픽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여 스포츠웨어가 유행하였으며 스포츠 브랜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6)

6) 김영인 편 (2002년) 『현대 패션 100년』 교문사 P. 270.

서울 올림픽 유치로 인하여 사회적 문호가 개방되어 세계 유명헤어그룹의 헤어패션에 관심이 높아짐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유명 미용실의 프랜차이나 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졌다. 따라서 여가를 중시하게 되었으며, 개인의 취향도 감성화, 다양화, 개성화되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고감도의 미용패션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유명 미용그룹의 브랜드가 라이선스형태로 도입되었으며, 국내의 유명 미용실의 브랜드도 · 헤어 피부 메이크업 분장 등으로 세분화되어 성장함으로써 본격적인 미용패션의 국제화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1983년 문교부가 시행한 두발 교복 자율화로 인해 청소년층의 캐주얼웨어와 패션화와 함께 청소년의 헤어스타일도 현대시대에 맞게 다양화 되었다.

1980년대에는 국내 미용전문출판사에 의해 미용잡지와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도서가 원서 수입 또는 번역되어 출판되어 이전의 국내 미용잡지와는 달리 좀더 전문적인 헤어패션의 정보와 헤어패션을 제공하고 1980년대 이후의 여성의 헤어패션 감각을 더욱 세련되고 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1980년대의 마지막 해인 1989년에는 정부의 해외 여행의 자유화의 조치와 함께 미용계에서는 희망사항으로 만 여기던 해외 유명 미용아카데미의 유학의 붐이 1990년 초기부터 불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많은 미용계의 디자이너들이 해외의 유명 아카데미인 비달사슨, 일본동경미용전문학교, 야마노 미용전문학교, 프랑스의 분장학교, 미국의 피포인트 등으로 러쉬를 이루었다.

이러한 유학의 붐으로 인하여 일본(동경), 마따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방콕 등지로 미용연수 갔었던, 1990년대 이전의 국내의 열악한 미용수준을

7) 『월드뷰티』 (1988년 3월27일) 한서도서출판사 P.62.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 받는 미용선전국의 수준에 까지 레벨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해외 선진 미용문화의 보급으로 국내에서는 토털패션이 부각되었다. 토털패션이란, 헤어, 메이크업, 의상 및 모자, 벨트, 가방, 신발, 기타 액세서리 등으로 코디네이트하여 이미지를 완성하는 분야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해외여행의 자유화로 인하여 다양한 해외패션이 국내에 보급되면서, 고감도화된 여성들의 개성 추구 경향에 의해 가능했다. 이들은 헤어스타일 및 화장에 의해 자신의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개성적인 코디네이션을 원하게 되었고, 의상, 액세서리 등으로 조화되는 토털패션으로 코디네이션이 여러 각 분야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그 외도 미용분야의 많은 부류의 것들이 세부적이면서 전문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내의 대학교에서 미용학과의 설립을 꾀할 수 있다. 인류에게서 미용은 이 땅에 나타난 이후 인간은 그 시대와 환경에 따라 인간 본연의 미를 추구하여 왔으며,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체의 미를 추구하는 욕구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현대의 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풍요로움에 의해 과학적이고 학문적 이론의 바탕위에 합리적인 미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태고적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체의 미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술의 극치의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감각적이고 본능적으로 표현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미용이 산업화로 변모하면서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술성과 학술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헤어디자인의 전문화와 피부 및 모발의 구조와 생리 및 병리학적 지식을 토대로 화장품의 성분과 제조, 그리고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부와 모발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 및 메이크업과 특수분장 등의 전문적인 미안술을 실습과 더불어 연구 지도함으로써 미용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으로 대학교에 미용학과가 설립되었는데 1993

년 강원 영동대학교 와 수원여자대학교에서 피부미용학과를 국내 최초로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미용관련학과인 미용학과, 피부미용학과, 코디메이크업과, 뷰티디자인과, 향장보건학과 등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2001년도 화장품·미용학과 대학별 지원상황 도표에 따르면 총 59개 대학 61개 학과에 지원자 총 39,079명 지원에 총 7,793명을 모집할 정도로 미용학과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리고 1999년 국내 처음으로 4년제 대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에서 미용학 관련학과인 미용과학과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1990년 서경대학교에서는 평생교육원 미용 경영관리 과정을 시작하여 2003년에 예술대학에 미용예술학과가 설립되었고, 건양대학교에서는 패션뷰티디자인학부 미용디자인학과를 설립하였으며, 세부전공으로는 패션 디자인학 전공과 뷰티 디자인학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003년에도 중부대학교에서 토탈 코디예술학과를 설립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2003년도에 대전대학교에서도 이과대학 뷰티디자인학과를 설립하여 교육목표를 대체의학계열의 피부전공을 접목시켜 자연치유요법을 강조하는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다. 남부대학교에서도 향장미용학부를 설립하였다.

4년대 대학에서 미용학과의 설립은 1999년 광주여자대학교에서 미용학과를 시작으로 하여 2003년까지 총 8개 대학에서 8개의 학과가 설립되어 되었으며, 4년제 대학의 미용학과는 미용학원 및 전문대학교와 달리 기술인 양성이 주목적이 아니라, 지도자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직과목 이수자에게는 2급 중등교사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1997년에 한국최초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미용관련학과인 패션예술학과 설립되었다.

한성대 예술대학원에서 미용관련학과인 패션예술학과 석사과정이 설립된

이 후 건국대 및 중앙대에서 피부미용학과를 설립하였고, 숙명여대의 향장학과, 성심여대는 코디네이트학과를 용인대는 미용경영학과를 설립하였고 한남대, 효성카톨릭대, 등지에서도 석사과정이 생성하게 되었다.

대학원의 미용학과 교육의 목적은 학문적으로 미개척 분야인 미용을 학문적 정립과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 양성 및 대학교 미용학교수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직은 미용학과가 생성된지 얼마지 않아 졸업생에 의하여 사회의 변화구도는 없으나, 앞으로 미용산업에 대단한 영향을 주리라 본다. 현재 2003년을 기점으로 아래의 도표와 같이 전문대학교 76대학, 4년제 대학 9대학, 대학원 과정으로는 10개의 대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미용관련 대학교 및 대학원				
번호	교명	과명	세부전공	기타
1	거창전문대학	피부미용과		
2	경도대학	피부미용과		
3	경동정보대학	산업디자인계열	코디메이크업 전공	
4	경북대학	피부미용과		
	경북전문대학	뷰티케어과		
5	경북과학대학	향장보건계열	화장품전공 뷰티디자인전공	
6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코디메이크업과		
7	경인여자대학	피부미용과		
8	공주영상정보대학	코디메이크업과 헤어디자인과		
9	광양대학	보건환경계열	피부미용전공	
10	광주보건대학	피부미용과		
11	구미1대학	피부미용과		
12	극동정보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13	군장대학	피부미용계열	헤어디자인전공 피부미용전공 메이크업전공	
14	김천과학대학	피부미용과		
15	김천대학	건강증진뷰티아트과		
16	나주대학	피부미용과		
17	담양대학	피부미용과		

18	대경대학	뷰티디자인계열	뷰티디자인전공 분장예술전공	
19	대구미래대학	멀티뷰티 코디네이션과		
20	대구보건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21	대동대학	피부미용과		
22	대원과학대학	메이크업코디과		
23	대전보건대학	피부미용과 화장품과학과		
24	대천대학	인터넷정보계열	뷰티아트전공	
25	동강대학	피부미용과		
26	동남보건대학	미용과		
27	동부산업대	피부미용과		
28	동서울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29	동아인재대학	보건계열	피부미용전공	
30	동우대학	피부미용과		
31	동의공업대학	향수	화장품전공	
32	동원대학	피부미용과		
33	동주대학	미용예술전공	피부미용전공	
34	마산대학	뷰티케어과		
35	목포과학대학	건강미용계열	피부미용전공	
36	부산동명대학	미용예술과 토탈패션과		
37	부산여자대학	피부미용과		
38	부산정보대학	피부미용과		
39	벽성대학	피부미용과		
40	삼육간호보건대학	피부미용과		
41	서라벌대학	피부미용과		
42	서강정보대학	피부미용과		
43	서울보건대학	미용예술과		
44	서해대학	피부미용과		
45	선린대학	패션디자인계열	뷰티디자인전공 코디네이션전공 네일아트전공	
46	성화대학	피부미용계열		
47	수원여자대학	미용예술과		
48	순천청암대학	피부미용과		
49	신성대학	피부미용과		
50	신흥대학	뷰티아트디자인과		
51	안동정보대학	피부미용과		
52	안산공과대학	뷰티디자인과		

53	안산1대학	뷰티아트과		
54	양산대학	피부미용관리과		
55	여수공업대학	코디메이크업과		
56	영동전문대학	미용과		
57	우송정보대학	피부미용과		
58	원광보건대학	미용피부관리과 화장품과학과		
59	전남과학대학	피부미용과		
60	전북과학대학	미용예술계열	뷰티코디네이션전공 피부미용전공	
61	전주공업대학	피부미용과		
62	전주기전여자대학	디자인계열	헤어디자인계열	
63	정인대학	피부미용과		
64	제주관광대학	뷰티디자인과		
65	제주한라대학	피부미용과		
66	주성대학	뷰티디자인과		
67	진주보건대학	피부미용과		
68	진주전문대학	뷰티디자인과	미용예술전공 피부미용전공 토탈패션전공	
69	창원전문대학	피부미용과		
70	창신대학	피부미용과		
71	청양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72	춘해대학	피부미용과		
73	충청대학	피부미용과		
74	해전대학	피부미용과		
75	해전대학	피부보건계열	화장품전공 피부관리정공	
76	경남정보대학	피부미용과	(신설)	

4년제 미용학과 대학별 유형				
번호	학교명	학부	학과	기타
1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2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3	건양대학교	패션뷰티디자인학부	미용디자인학과	
4	중부대학교	예술영상학부	토탈코디예술학과	
5	대전대학교	이과대학	뷰티디자인학과	
6	남부대학교	향장미용학부	피부,헤어,코디전공	
7	진주국제대학교	인체예술학부		
8	한서대학교	보건학부	피부미용학과	
9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복지대학	화장품,피부미용	

미용관련 대학원

	학교명	학과	전공	
1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패션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분장전공 뷰티에스테틱 패션이벤트	
2	중앙대학교	피부미용학과		
3	건국대학교	피부미용학과		
4	숙명여자대학교	향장학과		(사이버 과정임)
5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향장미용학과		
6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미용경영학과		
7	성심여자대학교	뷰티코디네이트과		
8	대전대학교 보건 스포츠 대학원	뷰티건강관리학과		
9	대구효성카톨릭대 디자인대학원	뷰티코디네이트디자인학과		
10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보건미용학		

III 개화기 이후 한국 미용패션에 관한 사적 고찰

1. 개화기 이전

1) 삼국시대이전

고조선 이전의 선사시대 B.C.3000년경 청동기 시대에 뼈비녀가 소영자 옛무덤에서 출토되었는데 비녀의 머리부분에 사람의 얼굴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농사짓는 풍속이 새겨져 있는 청동판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청동판이 발견되었는데, 한 사람은 쟁이로 땅을 파고, 또 한 사람은 따비로 밭고랑을 파고 있다. 따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성기(性器)가 노출된 남자인데, 머리에는 새의 깃털이 달린 절풍을 쓰고 있어서 남자의 사회적 신분을 보여준다. 이 청동판의 뒷면에는 ‘Y’자로 갈라진 나무 위에 새 한 쌍이 마주보고 앉아 있어 ‘농경문 청동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고고학자들은 여기에 그려져 있는 새는 샤먼의 지팡이에 앉아 있는 조두간식(鳥頭竿飾)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앞면 그림은 벌거벗은 남자 샤먼이 땅에다 씨(種)를 뿌리는 의식(儀式)으로 해석되었다. 청동기시대 후기 유물로 보이며 당시 샤먼이 절풍을 쓰고 의식을 집행하는 모습인 것 같다.⁸⁾ 이 유물을 보아 부족국가가 형성되기 훨씬 이 전부터 속발, 변발에 의한 올림머리와 상투의 머리양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이룬 부족국가는 그 위치가 가장 중국에 가까운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서북 해안지대에서 일어난 고조선이었다.

환웅천왕 거발환(B.C.3898)은 부자와 군신, 남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

8) 김병모(1998년)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출판사 p.57.

며 음식 의복 주거의 편의와 제도를 만들고 머리를 땅게 하였다.⁹⁾

제 2세 단군부루(檀君扶樓)는 계묘 3년 (B.C.2238)에 조서(詔書)를 내려 백성들로 하여금 머리를 땅아서 목을 덮도록 하고 푸른 옷을 입게 하였다.

단군조선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증보문헌비고’나 ‘연려실기술별집’에 단군 원년 백성들에게 머리를 개수(蓋首)하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보아 상당한 사회 문화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후 생성된 기자조선의 위만(衛滿)은 중국 동북 지방의 연나라 사람인데 한(漢)나라 때 연왕 노관(盧綰)이 반란을 일으켜 흉노(匈奴)로 들어가자 상투를 하고 오랑캐 옷을 입고는 무리 천 명을 모아 동쪽으로 달아나 국경을 넘어 패수를 건넜다고 한다. 그 후 위만은 진번, 고조선, 그리고 오랑캐 및 옛날 연(燕)과 제(齊)에서 도망친 자들을 규합하여 왕 노릇을 하고 왕검(王儉, 패수동쪽)에 도읍하였다.(B.C.149)¹⁰⁾ 위만조선의 위만이 상투를 했다는 것을 보면 당시 고조선을 위시한 주변의 모든 국가 사람들이 상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만의 이러한 행위는 그가 조선인과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선인 복장으로 변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에서 발굴된 진시황제(秦始皇帝)의 병마도용 군인들도 모두 상투를 틀고 있는데 그들은 중국 서북쪽에 사는 유목민인 강(羌)족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투를 트는 관습은 한(漢)족의 관습이 아니라 몽골계통의 유목민 풍속이었으며 고조선 사람들도 북방의 유목민과 같이 상투를 틀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상투는 ‘한서’ 조선전에 보면 추결(椎結)로 표기되어 있는데, 한국식 표기로는 수식(首飾)의 일종인 ‘상투’를 말한 것으로, 이 상투의 양식이 중국인의 수식과는 달라 방망이와 같이 뾰죽하다 하여 상투를 ‘추결’로 표현하였다. 그

9) 이강민(編)(1989), 『한국상고사』 (서울:케이출판사). P.48.

10) 『사기(史記)』 조선전

리고 편발(編髮)을 하였다.¹¹⁾ 함은 머리를 땅고 엮어서 올림머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마한인의 두식을 평하여 ‘괴두노계(魁頭露髻; 날상투)’이고 진한(辰韓)과 변한(弁韓) 사람은 미발(美髮)이며 편두(扁豆)의 풍습이 있었다.¹²⁾ 괴두는 둥글둥글 돌려 올챙이 같이 묶은 상투를 말한 것이다.¹³⁾ 편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누르는 머리의 변형으로 고대 한족(韓族)내지는 동북아시아족 특유의 것이었다.¹⁴⁾

마한(馬韓)은 비단이나 모직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구슬을 귀중히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한다. 대부분 머리를 틀어 묶거나, 상투를 드러내 놓으며,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풀로 만든 짚신을 신는다. 그리고 의책(衣幘)을 입기를 좋아하고, 하호(下戶)들이¹⁵⁾ 군(郡)에 나아가 조알(朝謁)할 때에는 모두 의책을 빌려서 입는다. 스스로 인수(印綬)를 차고 의책을 입은 자가 1천여 명이나 된다.¹⁶⁾하였다.

삼한(三韓)의 부인들은 머리를 또아리 틀어서 장식하며, 나이 어린 여자들은 꼬아서 뒤로 늘어뜨린다. 그러나 모두 아계(鴉髻)를¹⁷⁾ 만들며, 나머지는 아래로 드리운다.¹⁸⁾하고 있어, 우리 고대 사회 남북의 수식이 대개 같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흉노족이나 숙신족은 편발이었고 동호족은 곧두였으나, 아시아에서 상투를 한 민족은 몽골계통의 기마민족에게는 흔한 머리

11) 『한서』 권95 조선전 제65

12)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제30

13) 白鳥庫吉(1928), 「亞細亞北族の髻髮について」 《史學》 27(3)

14) 全海宗(1980), 「東夷族의 文獻的 研究」 (서울; 一湖), P.32~33.

15) 하호(下戶) : 하호의 개념규정 문제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체로 사회경제사층에서는 ‘노예’나 ‘농노’, 혹은 그와 유사한 층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16) 『해동역사』 제 20권 예지 3

17) 아계(鴉髻) : 여자들이 머리를 묶은 것이 갈가마귀의 깃털처럼 검으므로 아계라고 한다.

18) 『해동역사』 제 20 권 예지 3

모양이었다. ‘추결만이복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결발과 의복을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고대 복식의 기본형에서 보아 온 그대로라 해도 좋다.

고려(고구려를 고려라고도 칭함)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용모가 단정한 것을 숭상한다.¹⁹⁾고 하였으므로 수발도 당연히 행하여졌을 것이며, 구당서와 삼국사기 외 중국의 많은 고서에서 추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구려 사람은 모두 머리에 절풍(折風)을 썼는데 모양은 고깔과 같았으며 사인(士人)들은 두 개의 새깃을 더 꽂았다. 귀한 사람들은 그 관을 소골(蘇骨)이라 하는데, 자줏빛 얇은 비단을 많이 써서 이를 만들었으며, 금과 은으로 장식했다.²⁰⁾하였다.

신당서에서는 고구려왕은 다섯 가지 채색의 옷을 입었으며, 흰 얇은 비단으로 써 관을 만들었고, 가죽띠는 모두 금 테두리를 했다. 대신(大臣)은 푸른 얇은 비단으로 만든 관을 썼고, 그 다음은 붉고 얇은 비단으로 만든 관을 썼는데, 양쪽에 새깃을 꽂고, 금은의 단추를 섞어 달았다. 옷웃은 통소매요 바지는 통이 컸으며, 흰 가죽띠를 매었고 노랑 가죽신을 신었다. 서인(庶人)은 베옷을 입었고 고깔을 썼으며, 여자는 머리에 건괵(巾幘)을 썼다.²¹⁾고 한다.

조정 관리들은 신분에 따라 머리꾸밈의 장식을 달리 하였으며, 화려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일반백성들의 여자들이 건괵(巾幘)²²⁾을 썼다고 하였으니 괵(幘)은 쓰개의 일종으로 지금의 모자와 같다.

그리고 조성 대신들은 공사(公事)로 인한 모임에는 의복을 모두 금수(錦繡)와 금은으로 장식했고, 대가(大加)와 주부(注簿)는 모두 책(幘)을 썼는데 관책

19) 『북사』 권94 열전 제82

20) 『북사』 권94 열전 제82

21) 『신당서』동이 고구려

22) 건괵(巾幘) : 부인들이 쓰는 머리수건을 말한다.

(冠幘)과 같았으나 뒤가 없었으며, 그 소가(小加)는 절풍을 썼는데 모양은 고깔과 같았다.²³⁾고 한다. 고구려의 조정대신은 조정에서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의복은 달리 하였다. 대신들의 복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송) 풍이 있었으나, 집으로 돌아가면 전통의 복식에 따랐다.²⁴⁾ 고 한다.

고구려 안각 3호분(A.D.357)벽화의 부인이 가채을 이용하여 크게 올림머리를 하여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고 있다. (그림-8)

벽화에 나타난 남자는 외상투가 보편적으로 많았고, 집안(集安)에서는 쌍상투를 한 문지기 장수를 볼 수 있다.

여자는 얹은머리와 편발(編髮), 속발(束髮), 미발(美髮), 쌍계(雙鷄), 변발(辮髮)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올림머리에는 가채을 사용해서 고리모양으로 높이 틀어 얹은머리와 자신의 머리를 틀어서 올린머리로 나눌 수 있다. 묶은 머리는 미혼녀에게 많았고, 편발 및 속발에 의한 올림머리는 쌍영총 벽화의 부인에게서 볼 수 있다.

고구려의 머리형태는 4~5세기경까지는 머리의 장식을 높이 올린 고계(高髻)이며 꾸민머리의 장식이 6세기에 이르면 그 모양이 낮아지고 간편해지며 머리를 땀은 변발(辮髮)로 틀어 얹거나 쪽머리를 하는 양식 등이 보이고 있다. 즉 4~5세기에는 한(漢)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6세기에는 북방민족의 영향 때문이다.²⁵⁾

고구려에서는 상투, 편발, 변발, 속발, 상계, 미발 등 그 머리양식이 다양했으며, 이를 응용한 머리트는 방법등이 다양하였다. 집안(集安) 유적지에서 동비녀가 출토되고 있어 당시의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발전된 머리형태라고 생각되는 독특한 추계문화권(椎髻文化圈)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23) 『삼국사기』 제33권 잡지 제2

24) 『해동역사』 제20권 예지 3

25) 배정용 (1978), < 三國時代 婦女首飾의 樣式에 관한 研究 > 《진홍섭 선생 회갑 기념 논문집》 PP.237~238.

특히 무용총 벽화 주방의 여인은 미발형태로 머리를 머리 뒷부분에서 수직으로 빗어서 묶으면, 머리 끝 머리가 새의 꼬리처럼 올라가게 하였는데, 일본에서 나타나는 옛날 서화나 벽화에서 흔히 나타난다.

백제는 진한 마한의 한 요소를 이루던 부여계인 고구려 유이민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로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의 아들 온조(溫祚)가 남으로 내려와 B.C. 18년 하남 위례성(慰禮城)에서 이 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그 후 줄기찬 발전을 거듭하여 한때 동으로는 지리산에서 신라와 경계를 이루었고, 서남으로는 대해에 임하였으며, 북으로는 한강에 달하는 영토를 갖기도 하였고, 중국 진세에 이르러서는 멀리 요서(遼西)지방까지를 공략하여 이를 자국의 치하에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말 제 30대 무왕(武王)때부터 신라와의 잦은 전쟁과 호화로운 유흥생활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국정이 극도로 문란해지자 이를 틈타 협공해 온 나당연합군에 견디지 못하고 의자왕(義慈) 20년(660)에 항복하고 말았으니, 이로써 백제는 31왕 678년을 이어오다 멸망하였다.

백제는 부여계인 고구려 유이민이 세운 나라로 토착민인 진한(辰韓)과 결합하여 혼성체의 문화를 이루었으며, 한사군인 낙랑 대방과 직접 교역하여 중국적인 문화 기반의 확립은 오히려 앞서 있었음을 보여준다.

후주서에 기록하길 백제국의 부인들은 옷이 도포 같으나 소매가 약간 넓다. 미혼인 여자들은 편발(編髮)로 머리 위에 또아리를 틀고 뒤로 한 가닥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장식을 하며, 기혼인 여성은 이를 두 갈래로 늘어뜨린다.²⁶⁾하였고, 북사 및 수서에서는 백제국의 부인은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않고, 처녀는 머리를 땅아 뒤로 드리웠다가 결혼을 하면 두 갈래로 나누어 위로 틀어 올린다.²⁷⁾고 하였다. '주서' 와 '통전'에도 미혼녀는 머리를

26) 『해동역사』 제20권 예지 3. 『후주서』동이 백제

27) 『북사』 『수서』동이 백제

땡아서 엎고 뒤로 한 가닥을 늘어뜨려 장식했고, 기혼인 여성은 이를 두 가닥으로 늘어 뜨렸다.“고 하였다. 즉 백제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길고 아름답게 가꾼 마한의 전통을 계승하여 남자는 상투를 틀었고, 여자는 혼인에 의한 신분의 구별을 하기 위하여 머리형태를 달리 하였던 것으로 치녀는 한가닥으로 땡아 늘이다가 결혼 후에는 둘로 나누어 머리 위에 얹은 것이다.

“부여 정림사지에서 나온 도용(陶俑)의 머리형태가 머리를 둘로 나누어 위에서 묶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²⁸⁾

부여의 성양리에서는 은비녀가 출토되었고 무녕왕릉(A.D.501~523)에서는 왕의 화려한 머리 뒤꽂이가 발굴되었다.,

3국을 통일한 신라는 그 광대한 판도를 통치하기 위하여 당의 제도를 모방하여 제반 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여 중앙집권적 체제를 완성하고 문화면에서도 그들 고유한 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중국문화를 융합하여 명실공히 찬란한 민족문화를 이룩하였다.

통일신라 후반기부터는 귀족생활이 호화 사치스러워져 사회가 침체되었고, 또 신라의 기반이던 골품제도가 흔들리면서 귀족의 분열과 중앙집권체제의 문란을 초래하여 제51대 진성여왕 때부터는 군웅할거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후 후삼국시대를 겪으며 경순왕(敬順王)9년(935)에 고려에 통합되고 말았으니, 신라는 56대 992년 만에 막을 내렸다.

신라는 삼국통일로 고구려 백제의 문화를 흡수 통합하고 중국 당문화를 받아들여 귀족적이고 불교적인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삼국시대에 수입된 불교는 국교로까지 발전하여 국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화장묘(火葬墓)가 유행하게 되어 모든 부장품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고분출토품을 통한 복식제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28) 김동욱(1985), 『百濟의服飾』(부여:百濟文化開發研究院) PP.70~72.

통일 후의 신라는 태평성대가 계속되어 모든 문화는 난숙기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도덕은 차츰 헤이해지고 복식제도도 문란해져 사치한 방향으로 흘렀다.

신라는 옷 빛깔은 흰 빛을 숭상하고 부인은 머리카락을 땋아 머리에 틀어 올리는데 여러 가지 비단과 구슬로써 장식한다.²⁹⁾하였다. 그리고 신라 여성들의 머리가 매우길고 아름다웠다.³⁰⁾ 고 하며 태평어람에도 머리카락이 아름다우며 길이가 길다.³¹⁾ 하였다.

신당서에는 “대체로 아름다운 머리로 휘감고 주채(珠綵)로 장식하였고, 남자는 머리를 잘라서 팔고 흑건(黑巾)을 썼다. 시장에서 모든 부녀들이 팔고 산다.”³²⁾고 하였다.

신라 때에는 국도(國都)의 북방이 허결(虛結)했으므로 여자들이 뒤통수에다 머리채를 땋았다. 그래서 북계(北髻 · 쪽진머리)라 부르는데 지금까지도 오히려 그렇다.³³⁾ 고 하였다. 황성동 석실고본에서 머리를 정면에서 똑바로 가리마를 타고 뒤에서 틀어 북계로 빚은 여인상이 출토되었다. 소매에 파묻힌 왼손으로 살짝 입을 가리고 웃는 부끄러운 듯한 모습은 신라의 여성을 대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통일신라 경문왕(景門王) 9년(869) 가을 7월에 왕자 소판(蘇判) 김윤(金胤)등을 당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었는데 교역품 중 석자 닳치의 머리털 1백 50냥, 석자 닳치의 머리털 3백냥을 보내었다.³⁴⁾고 하였는데 당시의 당과의 교역품으로 다양한 물품이 있었으나, 가채(加髻)가 교역품으로 해가 갈

29) 『수서』동이신라

30) 『구당서』동이신라

31) 太平御覽 卷 781, 四夷部 2 本夷 2.

32) 『신당서』동이신라

33) 『동경잡기』풍속

34) 『삼국사기』제11권 신라본기 제11

수록 양이 증가하며 길어도 길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아 신라인의 머리카락의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인의 가채(加髢)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까지 그 우수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신라인의 가채가 중국의 가채보다도 아름다운 까닭은 동백 아주까리, 수유의 열매로 머릿기름을 제조하여 머리손질을 하였고, 또 유두일(流頭日)에 머리를 감는 풍속과 목욕을 중시하는 신라인의 영육일치(靈肉一致)사상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³⁵⁾

신라인의 머리카락과 외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질병도 가장 적다,³⁶⁾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시대의 남성의 머리모양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토용(土俑)에서 정수리가 뾰족하게 솟은 상투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고유의 전통 머리로 널리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의 여성은 황성동에서 출토된 토용에서 앞가르마를 탄 전형적인 쪽진머리를 볼 수 있고, 용강동에서는 반계(盤髻)나 고계(高髻)로 빗은 토용이 출토되었다.

신라시대에 사용하던 은비녀와 채(釵; 두가닥 비녀)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당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의복과 같이 머리형태도 더욱 화려해지고 머리모양이 다양해졌다.

그리고 여성의 전통적인 머리형태인 엷은머리나 둘레머리, 쪽진머리가 이 때 벌써 이루어져 오늘날까지 계속된 것이다.

출토된 여자상의 머리는 반발형(盤髮形)이고, 상의 위에 치마를 입고 가슴 위에 대를 매고 표(褙)를 둘렀으며, 여자상을 살펴보면 머리는 가리마를 정수리까지 타고 후두(後頭) 중간에서 묶고 오른쪽으로 비틀어 결발하였다. 의복은 폭이 좁고 깃이 둥글며, 가슴 높이에 대를 매었다. 소매통은 좁지만 의

35) 徐吉旻 (1986), 『裝身具史』 (서울: 한국장신구연구원), PP.28.~31.

36) 무함마드칸수 (1992), 『新羅·西域交流史』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P.200.

북 전체 통에 비해서는 넓은 편이다.

이와같은 당나라 풍(風)의 반발형의 머리모양과 의복이 고유의 전통적인 양식과 중국식의 양식이 혼재되어 화려한 모양을 더하였고,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의 복식문화가 더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발해는 제10대 선왕(宣王)때에는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였고 영토도 확장되어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불릴 만큼 크게 융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당이 망하고 오대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자, 이틈을 타 동몽고에 근거를 둔 거란족들이 갑자기 발전하여 그들의 추장(酋長)인 야율아보기가 중원을 정략하기 위해 먼저 발해를 침략하니, 애왕(哀王)은 이에 항복하여(926년) 발해는 14대 228년만에 멸망하였다.

머리형태는 “ 모두 편발의 풍속을 가졌다.”³⁷⁾고 기록 되어 있다.

1980년에 발견된 정효공주묘(756~792)의 벽화는 최초로 발해인의 형상을 보여준 것이다. 벽화의 12명은 남장을 한 여자들로 머리를 높이 땡아서 이마에 묶었으며, 입이 붉고 의복이 화려하고 그 태도가 대단히 우아하다. 이것은 다의 유행이 발해에 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³⁸⁾ 화룡현 북대촌에서 은비녀가 황룡현 룡수향에서 구리비녀가 출토되었고, 화룡현 팔가자 하남툰에서 금채(金釵)가 출토되어³⁹⁾ 머리를 땡아서 얹은머리와 쪽진 머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

고려(918~1392)는 그 국호가 말해주듯 고구려의 부흥자를 자처하였으니,

37) 『新唐書』 卷 219 발해

38) 王乘札(1990), <발해정해공주 · 정효공주묘의 발견과 발해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물관 《초록집》

39) 연변박물관 (1989), 『연변유물략편』 (연변 : 인민출판사), P.41.

북방민족들인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 그리고 한족(漢族)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 23대 고종(高宗)46년(1259)부터 약 80년간 몽고족이 세운 원(元)의 부마국이 되면서 고려는 자주성을 상실하였으며, 원이 쇠퇴함에 따라 신흥 명나라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선 왕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고려의 발전과정을 보면 고려 초기는 정치 종교 학술 예술면에서 전대인 신라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송(宋) 요(遼) 원(元) 등의 풍조와 영향을 다각도로 받아들여 그 내용이 다채로웠다.

고려는 조선처럼 폐쇄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 정치적으로 절교한 나라 외에는 해외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외국상인들의 출입을 허용했는데 이는 민족의 구성요소를 풍부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 이들 외국인들의 귀화(歸化)도 받아들여 생활문화의 폭을 넓히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복식사 연구에서도 이들 이민족과의 접촉에서 온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고려는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회였던 만큼 모든 문화가 불교와 많은 연관이 있었다.

몽고족의 원나라에 복속되어 있던 약 80여년간의 고려의 헤어스타일은 제 24대 원종 원년 원 세조가 고려에 국서(國書)를 보내, 의관은 고유의 풍속을 따르도록 하고 개혁하지는 말라는 자못 관대한 지시를 보내왔음에도 왕실 이하 귀족계급에는 향원심이 일어 술선해서 몽고풍을 따르는 풍조가 나타났다.

충렬왕은 세자로 있을 당시 원을 다녀올 때 이미 변발호복(辮髮胡服)에 개체(開剃)하고 있었다.

충렬왕 4년(1278) 2월에 국내의 백성들에게 모두 몽고 원의 의복을 입게 하고, 머리를 자르게 하였다. 몽고의 풍습에 주위의 머리를 깎고 가운데 머리만 남겨두는 것을 개체(開剃)라고 한다. 16년 9월에 백관들이 비로소 입(笠)을 쓰고 조알(朝謁) 하였다.⁴⁰⁾ 그러나 충렬왕은 모두 몽고의 의복을 입고

개체변발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어서 일반 백성 모두가 거기에 따른 것은 아니고, 다만 지배계급인 관료층과 출세를 회구하는 일부 소수층에서 만 하였고, 몽고의 풍습이라 하여 고려 백성들은 잘 따르지 않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녀(士女)들이 옷을 입음에 있어서 흰색을 즐겨 입는다. 남자들의 건책(巾幘)은⁴¹⁾ 중국의 모자와 모양이 같으며, 부인들은 귀밑머리를 오른쪽 어깨로 늘어뜨리고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풀어 헤쳐 강라(絳羅)로 묶고 비녀를 꽂는다.⁴²⁾ 하였으며, 정리(丁吏)는 평상시에 일을 볼 때는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든 두건을 쓰고, 중국 사신이 오면 그 위에 책(幘)을 쓴다.⁴³⁾ 하였는데 중국 사신이 오면 책을 쓰는 것을 보면 때와 장소에 따라 머리장식을 달리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소친시(小親侍)는 붉은 옷에 두건을 쓰고, 또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렸다. 고려 사람들은 대개 장가들지 않은 자는 다 건(巾)으로 머리를 싸고 뒤로 머리를 늘어뜨리다가 장가든 뒤에는 머리를 묶는다.⁴⁴⁾를 보면 결혼 유무에 따라서도 머리를 달리 했음을 알 수 있다.

부인들의 화장은 향유(香油)를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분을 바르되 연지는 칠하지 아니하고 눈썹은 넓게 그린다. 검은 비단으로 된 몽수(蒙首)를⁴⁵⁾ 쓰는데 세 폭으로 만들었으며, 폭의 길이는 8척이고, 정수리에서부터 늘어뜨려 눈부위만 내놓고 전부 가리며, 끝이 땅에 끌리게 한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의 처나 잡역에 종사하는 비자(婢子)도 복식이 서로 비슷하다. 이는 그

40) 『해동역사』 제 20권 예지 3

41) 건책(巾幘) : 머리에 쓰는 수건을 말한다. 두건(頭巾)

42) 『해동역사』 제20권 예지 3

43) 『해동역사』 제20권 예지 3

44) 『해동역사』 제20권 예지 3

45) 몽수(蒙首) : 고려 시대 부녀자들이 외출을 할 때 얼굴을 남에게 보이지 않게 위해 덮어 쓰던 쓰개의 한 가지이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길이가 짧아졌고 명칭도 개두(蓋頭)로 바뀌었다.

들이 일을 하고 구실을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몽수를 아래로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머리 정수리에 접어들리며, 옷을 걷고 다닌다. 손에는 부채를 잡았으나 손톱이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대부분 강낭으로 손을 가린다. 부인의 머리는 귀천의 구별없이 똑같아서 오른쪽 어깨 위로 드리우고, 그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내려뜨리되, 붉은 비단으로 묶고 작은 비녀를 꽂는다. 가난한 집에서는 몽수를 쓰지 않는데, 이는 대개 그 값이 은(銀) 한 근과 맞먹어 살 힘이 없기 때문이다.⁴⁶⁾ 고려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로 쓰개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그 모양을 달리하여 조선 말기까지 보편화 하였다.

그리고 여인들의 헤어스타일로는 출가 전 여자는 홍라(紅羅)로 머리를 묶고, 그 여발(餘髮)은 뒤에 내린다, 남성은 흑라(黑羅)로 묶는다.⁴⁷⁾하였으며, 婦女의 머리모양은 귀천없이 동일하게 머리를 틀어서 강라(降羅)로 묶고 여기에 작은 비녀를 꽂았으며 여발은 뒤에 내려뜨린다. 하였으니 이것은 흔히 하던 수발의 형식이었다고 본다.

‘고려도경에 의하면 “ 왕부(王府) 소녀의 복장은 피발(披髮)하지 않고 황의(黃衣)를 입고 있다.⁴⁸⁾하였다.

부녀의 발양은 이로써 쪽진머리와 비슷하나 쪽을 머리 뒤에 붙인 것이 아니라 어깨까지 늘어뜨렸는데, 이러한 부녀의 계양에 대해서는 ‘송사’ ‘문헌비고’등 여러 역사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의 발양은 중국에서는 추마계(墮馬髻)⁴⁹⁾라고 하며, 조선여속고 고려여장에 살펴보면 이 머리모양을 살적머리라 칭하였다. 이것은 말갈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양과 같다는 것에서 나온 명칭이다. 그런데 추마계는 쪽찢머리와 같이 머리를 땅아 머리뒤에 틀어 올린것이 아니고 남자

46) 『해동역사』 제20권 예지 3

47) 『고려도경』 제20권, 女子.

48) 『고려도경』 제20권, 女子.

49) 추마계(墮馬髻) : 남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머리를 말한다.

을 오른쪽 어깨에 내리드리우고,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내어 땡기로 묶고 비녀를 꽂았다.하였다. 그런데 추마제는 동한(東漢) 때 양기의 처 손수가 한 것으로⁵⁰⁾ 고려의 살적머리와는 모양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같은 계통의 머리는 아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부녀의 계양으로는 살적머리와 쪽편머리가 있었다 하겠는데, 그렇다면 고대사회 계양에서 본 ‘엷은머리’도 다양하게 존재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여기에 가체를 하게 된 것은 북학의(北學議) 여복조에 의하면 대개 남녀의 변발은 모두 오랑캐의 풍속이기 때문에 만주 여자의 머리채는 많이 땅아서 감은 것이다. 또 북학의 박제가는 연경에서 몽고 여인의 그림과 원(元)나라 인물첩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우리나라 여자와 완전히 같았다.. 대개 고려 때에 원나라 왕비들의 모양을 많이 숭상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연유해 내려온 것이다.⁵¹⁾하였다. 몽고 풍속으로 원 복속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귀부녀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머리양식은 동호(東胡)⁵²⁾ · 북로(北虜)⁵³⁾와 더불어 비슷한 바가 있으니 대개 우리나라 고대 문화가 그곳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때문이다.⁵⁴⁾ 라는 것으로 보아 북방의 기마민족들의 머리모양은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체의 풍습은 고대사회에도 있었던 것으로 이미 신라 성덕왕 당시체가 국내에서 애용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몽고 풍속에서 온 것이라고 본 것은 몽고에도 우리와 같은 가체의 풍습이 있었고, 원 복속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가 가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몽고풍에서 온 것이라고 오인한 것이다.

50) 『해동역사』 제20권 예지 3

51) 박제가 『북학의』 여복

52) 동호(東胡) : 몽구스족의 옛 이름. 흉노족의 동쪽에 있다 하여 붙인 이름

53) 북로(北虜) : 중국 북부에 살던 종족. 흉노족 또는 견융족(犬戎族)

54) 이능화(1981년) 『조선여속고』 제18장 조선여자복장제도 P.221.

거가잡복고에서는 공민왕 원년에 변발호복은 선조의 제도가 아니라는 신하의 말에 변발을 풀었다.”고 하였으며, 고려사에는 원을 섬긴 이래 개체변발하여 호복을 입은 지 백년이 가까이 오다가 이때부터 의관문물이 완전히 다시 새로워졌다.“⁵⁵⁾고 하였다.

충렬왕의 개체변발은 1278년에 시작되어 약 80여년정도 계속된 것이고, 궁에 사는 왕족과 신하들이었고 백성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 후 본래의 고유한 수발양식인 상투와 올림머리로 환원되었다.

둔마리 고분의 천상선녀는 머리를 얹고 남은 머리는 어깨에 늘이고 있으며, 각시상은 추마계와 같은 머리형태이며, 목우상의 남자는 중간부터 묶은 머리이며, 여자는 가체를 하였는데 어깨까지 온다.⁵⁶⁾

비녀의 모리모양이 부처의 육계와 닮은 불두잠은 불교사상이 반영된 것이고, 채가 이 출토되고 있어 고려시대에도 삼국시대의 얹은머리가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조선시대

태종(太宗)왕이 본국 여복을 다 중국제도 따르게 하고자 하매, 허주가 계(啓)를 올리어 아뢰기를 「신이 이왕에 연경(燕京)의 켈리를 지나다가 공자묘(孔子廟)에 들어가 여복화상(女服畫像)을 보았는데 본국여복(本國女服)과 다름이 없고, 다만 수식(首飾)만 달랐나이다.」 하더니 그 뒤로는 이런 일이 그치어지니라.⁵⁷⁾ 고 했다.

55) 『高麗史』 72券 志 第26, 輿服 1.

56) 김용문(1982), 『우리나라의 수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58

57) 문헌비고 태종조

수식(首飾)만 달랐나이다.라는 말처럼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한 민족의 머리양식은 어떠한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민족과 타 민족의 구분이기도 했다.

선조 5년에 이수광은 이르기를 「부인의 머리 쪽지는 법과 동자의 머리땡는 법은 호속(胡俗)에서 나온 것이다. 예법가(禮法家)가 다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하지만 구속(舊俗)을 빨리 바꾸지 못하고 있다. 개탄할 노릇이다」라고 하였는데,⁵⁸⁾ 사람들은 옷은 쉽게 달리 할 수 있으나 머리모양 만은 조정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여성들은 옛 전통의 머리모양을 고수하는 고집이 대단하였다.

오늘날의 풍습에 부녀들이 꼭 머리를 땡아 두 갈래로 하여 위를 동인 다음, 그 끝을 꾸부리어 오른 쪽에 꽂고, 그 끈은 드리워 마치 「시경의 권발여채(卷髮如蠶)라는 말과 같으니 성세(盛世)의 풍채(風彩)를 완연히 보는 듯하다」⁵⁹⁾하고 했다. 또 지금의 풍속에 혼례 때 머리치장을 하고 붉은 장삼을 입는 제도는 명승(明昇)으로부터 나왔다.⁶⁰⁾ 하였으며, 삼한부인(三韓夫人)은 머리를 틀어 꾸몄고 여자는 말아 뒤로 드리웠으며 전부 땡고 얼마를 남기어 드리웠도다.⁶¹⁾고 했다.

그리고 영조(英祖) 35년에 부녀의 덧머리 틀기를 금하고, 그 대신 족두리로 쓰도록 바꾸었다. 그러나 잘 시행이 되지 않아 정조(正祖) 12년 겨울 10월에 부녀의 덧머리 틀기를 금하였다. 애초 영조 임금 때 머리 틀기를 금하는 명이 있었으나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아서 이에 이르러 우정규가 소를 올린 글 중에서 그 폐단을 성론(盛論)하였으므로 왕이 대신을 불러 묻자 다 금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58) 이능화(1981년) 『조선여속고』 제18장 조선여자복장제도 민속원

59) 문헌비고

60) 문헌비고

61) 『남방위』 조선시선

이유로는 머리 가꾸는 모양이 함부로 중수지식(重首之飾)하여 다투어 사치스럽고 크게 꾸미니 그 도가 높아지고 함부로 날뛰는 자는 재산이 쓰러지는 것도 돌아보지 않으며, 가난한 자는 자못 폐륜에까지 이르는 일이 있게 되었으므로 그 폐단이 극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부녀에 대하여 가체(加髢)를 일절 못하도록 하고 사치를 버리고 검소하게 하도록 아래와 같이 명⁶²⁾을

62) 절목(節目)

一. 사족처첩(士族妻妾)과 여항부녀(閭巷婦女)에 대하여 다른 머리를 땡아 엮어, 본머리에 덧붙이는 일을 일절 금기한다.

一. 대체식(代髢式)과 낭자머리·쌍계(雙髻)·사양계(絲陽髻)는 출가 전의 머리 지음새이니 하지 말 것이며, 머리를 틀어 뒤에 쪽지고 머리 위에 족두리를 쓰되, 족두리를 만드는 데 쓰는 면서(綿絮)나 양죽(涼竹)은 다 검은색으로 한다.

一. 지금의 이 금제(禁制)는 오직 사치하는 일을 덜고자 하는 성의(聖意)이니, 족두리로 대용한다고 핑계하여 칠보(七寶) 따위를 여전히 꾸며 쓰면 곧 제도의 개혁은 이름뿐이고 실인즉 검소함이 없으니, 금옥(金玉)·주패(珠貝) 및 진주·당계진주(唐紛眞珠)·투심(套心)붙이는 한 가지로 다 금한다.

一. 어유미(於由味)·거두미(巨頭味)는 명부(命婦)들이 상시(常時) 지니는 것이나, 민가에서 혼례 때에 쓰는 일만은 금하지 않는다.

一. 족두리의 꾸밈새는 이미 금지조항으로 하였으며, 세(貰)로 얻거나 세로주는 자를 먼저 금하고, 영(令) 이후 범하는 자는 임자나 거간꾼을 가리지 말고 법사(法司)에 넘겨 법대로 처벌하고, 거간꾼을 일컬어 잡패(雜佩)를 매매하는 갖가지 악습은 고쳐야 할 것이므로, 구전(舊典)의 명문(明文)대로 포청(捕廳)에 붙여 고발 금단한다.

一. 상천여인(常賤女人)으로 거리에서 얼굴을 내어놓은 유와 종전 공사천비(公私賤婢)에게 허락하였던 덧머리 따위의 머리 꾸밈새에 대하여는 각별히 금단하고 각 궁방(宮房)의 수사리(水賜里)·의녀·침선비, 각 영읍(營邑)의 기생 등에 대하여는 머리를 Y 모양으로 위로 올리게 하여 예사와 다름을 나타내고, 내의녀(內醫女)는 모단(冒緞)을 쓰고 나머지는 흑삼승(黑三升)을 쓴다.

一. 경사(京師)에서는 동짓날(冬至日)을 외방(外方)에 서는 동지에 준하는 날을 한하여 일제히 준행한다.

一. 정한(定限)이 지난 뒤에 이를 준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그 가장(家長)을 즉시 오랏줄

내렸다.

정조 때의 상신(相臣) 채제공은 덧머리의 폐단을 계를 청함에 유생된 궁한 집에서도 6~7십 냥을 들이지 않고서는 살 수 없고, 잘 하려고 하면 수백금이 들므로, 밭을 팔고 집을 팔지 않으면 달리 도리가 없다. 하였으며, 밭과 집을 팔 수 있는 이가 얼마되지 않는다 하여, 이런 까닭에 아들이 있어 며느리를 취하려 하나 덧머리를 대어 들고 쪽지는 일을 할 수 없어서 현구고지례(見舅姑之禮)를 올리지 못하여 폐륜에까지 이른 자를 다 헤아릴 수 없다. 63) 하였다.

그리고 머리 틀어 얹는 일은 몽고의 유풍이니 힘써 크게 사치할 것이 무릇 지금의 부인이 어쩔 수 없이 이 속(俗)에 따르지만 이에 힘써 크게 사치할 것이 못된다. 부귀가(富貴家)에서 7~8만 냥을 비축하여 군마(軍馬)가 많은 기치(旗幟)와 치장에 눌러 쓰러지는 격으로, 요란스럽게 머리를 꾸미고 웅황(雄黃)불이 · 법랑(法瑯) 비녀 진주 달린 비단끈 따위로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할 만큼 머리를 꾸며도 가장(家長)된이로서는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럴수록 부인은 더 사치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근자 부자집에 며느리가 있어 나이 겨우 열 세살인데, 틀어 얹은 머리가 높고 무거워 시아버지가 방으로 드는 것을 보고 바빠 일어서다가 목이 부러졌다고 한다. 사치가 사람을 죽이었으니 슬퍼하노라. 64) 하였다.

북학의 여복조에 “오늘의 장부치고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이가 절무(絶無)하니, 이후에도 잘될 것 같지 않아 두렵다. 65) 고 하였는 것으로 보아 조선 여성들의 머리 사치가 얼마나 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영.정조의 가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않은 점과 정조 임금이 가채금지령을 내리면서

로 묶는다.

63) 『조선여속고』 제18장 조선여자복장제도 P.232.

64) 『청장관전서』 사소절 부의

65) 『북학의』 여복조

부녀복식에 관한 일이 정사 밖의 일이라 일컫지 말지라.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임금도 여성들의 머리 사치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집의 가장들이 아녀자들의 머리 사치를 말릴 수 없다. 함은 당시 조선의 여성 권위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여인의 기본 머리모양은 기혼녀는 트레머리, 낭자머리, 미혼녀는 땡기머리로서 다른 것은 여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고, 수식(首飾)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인 머리형에서 다양하게 유행하였는 것 같다. 이 밖에 예장용으로 사용되던 머리모양에는 대수(大首)⁶⁶⁾, 거두미·떠구지머리(巨頭味)⁶⁷⁾, 어여머리(於由味·於汝美)⁶⁸⁾, 트레머리, 낭자머리⁶⁹⁾⁷⁰⁾ 찹지머

66) 대수는 궁중에서 왕비의 의식용으로 대례복과 병용하던 수발양식이기 때문에 그 모양은 과대하고 화려했다. “적의의 관은 구적관이여야 하는데 수식은 국속에 따라 마련하였다.” 고 한 것으로 보아 적관을 구할 수 없으면 국속에 따른 수식으로 화관같은 것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머리장식으로는 머리를 어깨높이까지 곱게 빗어내리고 양끝에 봉황이 조각된 비녀를 꽂으며, 뒷머리 가운데에는 머리를 두 갈래로 땡아 주홍색 땡기를 늘이고 머리 위 앞부분에 떨감과 봉비녀로 장식하였다.

대수의 양식은 앞에서 보면 머리 정상부위는 고개를 만들고 그 밑으로는 좌우 어깨까지 내려오면서 팔(八)자형으로 펼쳐진다. 뒤도 앞과 같으나 중간에 종(縱)으로 머리를 땡고 그 위에 비단 땡기를 묶고 있는 것이 다르다.

67) 세조 원년에 명의 사신이 가지고 온 면복계양(冕服髻樣)은 수발을 가리마에서 좌우 두 갈래로 나누어 묶어 Y 자형으로 머리 위에 찢다고 했으니 이것이 혹 큰머리라고 한다면 시작은 세조 원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¹⁾

거두미는 궁중에서 의식 때 하던 머리모양으로서 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라는 나무로 만든 큰 머리를 얹어놓은 것인데, 정조는 선조(先朝)에서 매듭짓지 못했던 체계금지를 위해 등극하자 우선 궁중에서부터 이를 금하고 가채(加髻)을 쓰던 것을 나무로 대신케 하였다, 이 목으로 된 대용물이 떠구지였는데, 그리하여 거두미를 떠구지머리라고도 하였다.

아(Y)계는 조선왕조 중기 이전에는 가채(加髻)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그 가채로 인하여 사회적 병폐가 심하여 후기에 오면서 궁에서부터 가채를 쓰던 것을 나무로 대신케 하였는데, 이 나무로 된 대용물이 떠구지였으므로 큰 머리를 떠구지머리라고도 하였다.

떠구지머리는 명부(命婦)들이 늘 착용하던 의식용 수발양식으로, 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라는

나무로 만든 큰 머리를 얹어 놓은 것인데, 정조 3년(1779년)에 생겨났다.

68) 어염머리인 어유미는 예장할 때 머리에 얹는 다래(月子)로 된 커다란 머리를 말하는데, 머리에 어염 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이 다래로 된 큰 머리를 얹어 옥판과 화잠으로 장식하였다. 이 어염머리는 큰머리에 버금가는 예장으로 궁중에서나 반가 부녀들이 하였고 상궁으로서는 지밀상궁만이 하였는데, 이를 또한 토야머리라고도 하였다.

어염머리는 가채 일곱 개를 같이 묶어 두 갈래로 땡아 어염족두리 위에 얹고 비녀와 매개당기로 고정 시킨다. 영조대에는 어염머리가 주로 외명부의 의식용으로 쓰였는데, 후기 및 국말에 와서는 띠구지머리와 어염머리가 큰 구별없이 혼용되었던 것 같다. 또한 어염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기도 하며 큰 의식때는 큰머리에 화관이나 가채를 쓰기도 했다. 일반인도 잔치와 혼례때에는 어염머리를 사용하였다.

어염머리는 19세기 전후까지만 해도 외명부가 입궐할 때 또는 의식에 치장하던 양식인데, 후기 및 국말에서는 비빈을 위시한 내명부도 사용하였고, 내인들은 나무로된 띠구지까지 쓴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말에는 더욱 간소화되어 입궐할 때에 어염머리가 아닌 띠구지머리로만 꾸몄다

69) 이능화 (1981) 『조선여속고』 제18장 조선여자복장제도 민속원출판 P.236. : 북계(北髻)에서 온 머리를 머리 뒤에 가져다 튼 것이니 속칭 낭자(娘子)머리다. 하였음

70) 얹은머리는 두발을 땡아 머리 위로 둥글게 얹는 형태로 고대사회부터 있어 왔으나 조선 중기에 이르러 가채(加髻)가 성행하여 1계(髻)의 갑이 중인(中人) 10가구의 재산 이상이었고, 성종조에는 당시 고계(高髻)의 높이가 1척(一尺: 약 30cm)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채,고계의 풍습은 임진, 병자양란 이후 폐단이 고질화되어 영조대에 이르러 가채 금지령이 내려 족두리로 대신하게 하였으나 별 실효를 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체계를 대신케 한 후계(後髻)또는 북계(北髻) 즉 낭자머리제도는 정조 재위 중에는 완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순조 중엽에 가서야 이루어진 듯한데, 이에 대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국조 중엽 정조 신해(15년) 이전까지는 대체가 있어 이것을 가채(加髻)라 하였으며, 자기 머리와 합쳐 땡지 않고 긴 다래를 땡아 머리를 한번 두를 만큼 만들어 얹고 비녀를 꽂았다. 정조 신해 이후 가채(加髻)을 금하고 북계 소명 낭자라고 하는 것을 쓰게 하였는데, 이것은 머리를 땡아 뇌후(腦後)에 둥글게 서린 다음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쓰게 한 것이다. 순조 중엽 후로 전국의 부녀(婦女)가 다래로 머리 얹는 법을 없애고 자기 두발로 뇌후에 쪽을 찢 다음 작은 비녀를 꽂았는데 이것이 그대로 풍속이 되었다. 경인년(순조 30년)에 이것을 금하고 다시 머리를 얹게 한 일이 있었으나, 머리를 높이고 사치하는 고대치

리71). 조짐머리72), 새양머리(絲陽髻)73), 땡기머리74)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어린이용의 종종머리75)가 있었다.

미(高大侈靡)하는 습속만은 엄금하므로 실시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것이 우리나라 부녀 머리모양의 연혁(沿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우리는 엷은머리에서 남자머리로 이행되어 간 경위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남자머리에 가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남자머리는 초기에는 쪽이 뒤통수에 달려 있던 것이 점차 내려와 말엽에는 저고리 위에 있게 되었으며, 그 후 개화기에는 다시 뇌후로 올라가 지금에 이르렀다.

71) 예장할 때의 머리로 첩지란 왕비는 도금으로 봉황, 내명부·외명부는 금은 또는 흑각(黑角)으로 개구리를 만들어 좌우로 긴 머리털을 단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가리마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느긋스듯 양쪽으로 뿔아 뒤에서 머리와 한데 묶어 쪽을 쥔 머리모양이다.

이 첩지의 장식은 화관이나 족두리를 쓸 때 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궁중에서는 평시에도 첩지머리를 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신분의 상하를 가르기 위해서이기도 하였으며, 궁중법도에 따라 어느 때 족두리나 화관을 쓰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72) 이것은 흔히 외명부가 궁중 출입 때 하던 가체의 일종으로 남자를 소라딱지 비슷하게 크게 틀어 쪽편머리를 가식한 것인데, 이 머리모양은 정조 때 발제개혁 이후 엷은 머리 대신 쪽편머리를 하게 함으로써 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73) ‘쌍’이란 문헌에는 사양(絲楊) 이라고 나오며 남자 아이들의 쌍상투에 해당한다. 이것은 궁중의 애기나인의 예장용 머리모양으로 두발을 두 갈래로 갈라서 뿔고 이것을 다시 올려 위 아래로 두 덩어리가 지게 잡아 매었는데, 여기에 봉이나 나비 등이 조각된 뒤꽂이를 꽂고 땡기코에도 석옹황 같은 것으로 장식하였다.

74) 이것은 미혼녀의 머리모양으로 양쪽 귀 위의 귀밑머리를 뿔아 뒤에서 모아 다시 번발하여 늘이고 끝에 땡기를 드렸는데 머리채가 긴 것을 자랑으로 삼아 여기에도 가체(加髻)를 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반가의 규수들은 귀밑머리로 귀를 가리고 일반 처녀들은 귀를 가리지 않았다.

75) 여자 어린이의 뿔은머리 형태로 머리술이 적은 어린이의 머리를 앞가리마를 하고 좌우에서 각각 한쪽에 세충씩 세줄로 뿔고 그 끝을 모아 뿔아서 땡기를 드렸다.

2. 개화기 이후

1) 단발과 양머리의 유행(1885~1920)

1885년 11월 고종황제의 단발령(斷髮令)에 의해 상투가 잘리게 되지만 계속 상투를 틀고 망건과 좁은 갓을 쓴 사람도 적지 않았다. 유건(儒巾)을 쓴 선비들은 “상투를 베는 것은 오랑캐의 풍속이니 단발령을 도로 거두소서.”라는 상소를 올렸고, 백성들은 죽으면 죽었지 상투는 못 내놓겠소.” 하며 슬퍼했다고 한다. 미혼인 남자는 머리를 길게 땅았다가 혼인 후에는 상투를 틀었다. 그러나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으로 인하여 단발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단발령과 양복착用に 대한 백성들의 견해는 독립신문의 경우 “머리깎고 양복 입는 것은 기동도 세우기전 장판부터 놓는 격으로 선후는 바뀌었으나 언제든지 할 일이며, 백성에게 편리한 일인즉 조정에서 억지로 시키지 말고, 백성에게 맡기도록 하라.”고 주장하였다. 단발은 손질하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머리감기 편리하고, 의복의 청결이 유지되고 활동하기 편하며 머리모양을 얼굴에 맞게 변화 시켜 빚을 수 있다. 그러나 이발소에 가야 하는 금전의 낭비와 한복과 조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남자의 단발이 1910년대에 실시되는 과정에서 보수와 개혁파의 시비가 있듯이 여자의 단발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며, 귀밑머리를 푸는 일 옆가리마를 하는 일 등에도 논란이 있었다. 남자머리는 조선시대 후기의 모양과 같으나 목뒤로 늘어지게 쪽지던 것을 조금 올려 하는 경향이였다.

그리고 여성들의 머리에는 남자머리가 많았으나, 지역마다 머리를 땅아 머리 휘감은 권발여체(卷髮女髻)의 얹은머리 모양도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그리고 1900년 당시 개교하였던 한성여학교, 이화학당 등 여학생들 사이에 유행한 일본속발인 ‘히사시가미’(底髮)란⁷⁶⁾ 스타일이 유행을 하였다. 당

시 일본의 유명한 여배우 가와가미(川上貞奴)가 했던 것으로⁷⁷⁾ 조선의 신여성 및 기생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도 인기 영화배우를 모방하는 풍조에 의해 조선 여학생들과 신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그러나 히사시가미는 일본속발의 일종으로 자기 스스로 손질하기 어려웠고 미용사의 도움이 없으면 하기 힘든 스타일이라, 특별한 날인 졸업식 같은 날 이외에 하기 힘들었던 스타일이었다. 또 당시 일본일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하던 것이라, 친일이라는 말을 듣기 쉬웠고, 소수층에서만 행하여졌으며,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1907년 동경 유학생 최활란이 귀국하였는데 히사시가미 머리에 양말, 구두, 검정색 짧은 통치마를 입었다. 이 차림은 그 후 잠깐 유행을 하였다.

이 스타일은 정수리의 부분에 토대를 만들고, 얼굴선을 따라 백콤처리하여 머리를 원롤형의 볼륨감을 살려 앞, 옆, 뒷부분이 삼각구도로 시술한 업스타일의 일종으로 1910년대에는 여학생들 사이에 많이 하였던 것으로, 일부 신여성이나 화류계 여성들 중심으로 선호 되었다.

그리고 까미머리라고 불리우는 양머리(洋髮)는 옆 가르마를 타서 갈라빛고 머리 뒤에 널찍하게 틀어 붙이는 모양이며, 널찍하고 클수록 보기 좋다하여 속에다 게바다(げばた)라고 하는 심을 넣고 겉에만 머리를 크게 보이게 했다.

양발의 일종으로 인식되어 신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여성들 사이에서도 땡기머리에서 양발로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뒤로 간편하게 묶는 헤어스타일도 나왔다.

이 머리는 당시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외국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스타일이 조선 여인들 사이에 유행하였는데 이를 “예배당 쪽, 전도사 부인쪽,

76) 일본 명치후기부터 대정시대에 유행한 머리, 특히 일본에서 여학생에게 유행, 지금은 신일본발(신니혼가미)이라 부름 명치(1869~1912) 대정(1912~1926)

77) 고부자 (2001년) 『우리 생활 100년 옷』 현암사 P.79.

양머리"라 불리었는데 그 인기가 대단하여 멀리 지방까지도 전파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도 여성들 사이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으며, 1920년 평안도 안주에서 여염집 부인에게 까지 유행하자, 양반 부인이 이러한 머리를 한 부인이, 공동 우물을 쓰는 것을 막는 일도 벌어졌다.⁷⁸⁾

2) 여성단발시대(1921~1930)

세계적으로 급속히 유행되었던 단발스타일은 1920년 경 유럽에서 대 유행을 하였는데, 이 당시부터 본격적인 보브스타일의 붐이 시작되었다.

이 보브스타일은 뒷머리는 짧고 직선적인 뭉뚝한 커트(blunt cut)를 하고 앞머리는 일직전상으로 짧게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본래는 네델란드인들의 전통적 머리스타일로 유럽에서의 어린 소년들이 이 스타일을 했다. ⁷⁹⁾

보브 스타일이 처음으로 유럽여성에게 나타난 당시 보브란 '자르다 (cut)'의 별칭으로서 머리를 잘라서 모양을 내는 것을 모두 보브라 불렀다.

이 보브 스타일이 유행하게 된 것은 1910년 아일린 캐슬이란 무용가가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그것이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이는 여성들이 산업혁명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세계 1, 2차 대전으로 남성들의 전쟁참여로 노동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값싼 여성의 노동인력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헤어 스타일도 실용적이고 편한 것으로 대체되었다.

경제의 불황과 전쟁의 되풀이로 인해 헤어 스타일 역시 간편한 것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78) 유희경, 김문자 (1998년)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363.

79) Turner Wilcox(1979). The Dictionary of Costume(London:: B . T .Batsford Ltd.) P.31.

일본풍의 히사시가미(庇髮) 스타일은 차차 사라지고 보브(BOB) 스타일의 종류가 다양화 되면서 처음 조선에서도 단발머리를 선보이게 되었다.

개항으로 인하여 국제적 교류가 빈번해지고 조선관인들의 해외 파견 및 외국으로 유학생이 많아지면서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다.

보브 스타일이 한국에 전래된 유래로는 세계1. 2차대전이 끝난 후 서구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고, 한편에서는 스윙재즈의 리듬이 유행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의 하나는 보브 스타일이었다.

이 당시 조선에서도 서구문화인 사교댄스가 들어와 태화관이나 명월관 같은 유명한 요정에 양악대라 부르는 밴드가 등장하면서 경쾌한 리듬에 맞춰 기생들과 댄스를 하였으며, 당시 화류계는 신문물의 패션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계층중의 하나였다.

1929년 기생 중 처음으로 남도 출신의 정금숙, 서도 출신의 김금도 등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단발머리 스타일로 돌아와 여성들 사이에서 급속히 유행하여 퍼져 나갔다.

그리고 단발의 대명사로 불리어진 신여성 중에 당시 일본 및 유럽, 미국에서 오랫동안 순회공연을 하면서 세계적인 무용가로 이름이 알려진 최승희가 있었다.

일본에서 무용을 배운 후 1929년 귀국해서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공연도 열었다.

1934년경 조선 전국의 여학생 사이에서 단발머리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양장을 착용하는 이가 많아지면서 양장미인과 더불어 단발미인이라고 불리었다.

단발머리는 유학을 하고 돌아온 신여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의해 소개 되었으며, 이들을 '단발미인' '모단 걸' 이라고 하였다.

1922년 김활란의 단발머리는 유명하다. 이 단발은 많은 시비를 받았다.

1925년에는 저명한 각계 각층의 인사 13명에게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 찬성하는 편이나 신학문을 한 일부층 인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다.⁸⁰⁾

그리고 중국은 아시아에서 제일먼저 상하이에서 문호개방을 하였고, 상하이에서는 당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등 많은 서구사람들이 활동을 하였고, 서방물결에 의하여 중국 여성들 사이에 단발머리의 여성이 많았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던 여성이 한복에 남자머리로 사람들에게 쉽게 눈에 띄이기 때문에 단발머리에 중국 만주 전통복을 입고 활동하였으며,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의 가족들도 많이 단발머리를 하였다.

3) 마셀웨이브와 전발(電髮)유행 (1931~1945)

1920년경에 한국에서도 마셀웨이브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한국에 소개된 마셀웨이브는 1875년 프랑스의 마샬 그라또우(Marcel Grateau)에 의해 마셀 웨이브를 창안하여 발표하였는데 마샬 웨이브는 아이론에 열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모발에 물리적 변화를 주어 웨이브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 마샬 아이론에 의한 웨이브의 특징은 S자형의 자연스런 부드러운 웨이브의 질감을 처리하여 헤어스타일을 시술하는 기술이다.

일본은 1913년 프랑스인 마리 루이스에 의해 마셀 웨이브의 기술이 보급되었으며, 1933년에 마리 루이스에 의해 1933년에 파마넨트과를 설립하여 일본에 최초로 소개되었다.⁸¹⁾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활동하던 프랑스인 마리 루이스의 영향에 의해 1920년 경에 소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80) 『신여성』(1925년 8월호) 개벽사 참조

81) 일본 신미용 1986년 1월1일 발매 P.81.

당시 발행되었던 신문 및 잡지에 1920년경에 머리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리는 것으로 보아 1920년경에 많은 사람들이 마샬웨이브 머리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며, 조선에 소개되었던 것은 1910년 말 인것 같다.

마샬웨이브가 한국에 소개된 후 1930년경에 전발이 소개되었는데, 1936년 4월 『여성』지의 창간호 표지 모델의 헤어스타일은 전발의 머리가 기제되었고,(그림-9) 1937년 미야꼬 양장점의 광고란에는 파마머리를 하고 코트에 스커트를 입고 구두를 신은 여성을 그렸다.⁸²⁾ 는 것을 보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발의 스타일이 조선에 소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퍼머넨트라는 영어를 일본 정부에서 사용치 못하게 하여 한국 및 일본에서는 전기를 사용한다 하여 전발이라 칭하여 불렀고, 국내에서는 숙발이라고도 불렀다.

당시 일본은 조선보다 먼저 개화를 시도하고 단발령을 시행하여 서구의 문물을 받아 들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 미용기술에서는 일본내 누구라도 미용기술을 습득한 자가 없어, 일본 궁내부에서 프랑스인 마리 루이스를 프랑스로 부터 초청을 하여 일본에 현대 미용의 보급을 부탁하였다.

마리루이스가 오기 전까지 일본의 전통적인 일본숙발 밖에 없었으나, 일본 초청을 응하면서 이로부터 일본의 현대미용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마리-루이스는 일본의 근대미용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다.” 프랑스로부터 마샬웨이브 및 여러미용 기술을 익히고 미용강사로 활약하던 마리루이스는 일본 동경 유락조에서 미용 강습소를 설립하였는데, 1913년의 일이다

그리고 1933년에 파마네트과를 설립하여 전발의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그로 인해 일본 및 조선에서도 마리 루이스의 마샬 웨이브의 기술과 전발의 기술 및 양발스타일이 거의 동시에 조선에도 보급되었고, 조선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일본 미용기술자로부터 마샬 웨이브의 기술을 배워 사람들에게 시술

82) 고부자 (2001년) 『우리생활100년-웃』 P.183.

을 하였다.

그리고 문헌상 알려진 최초의 미용사는 1937년 오엽주였는데 일본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화신상회에서 미장원을 개업하였가 화신상회의 화재로 다음해 화신백화점에 개업하였다.

당시 가장 중심가였던 종로의 화신백화점과 신신백화점에 입점하였는데 여성헤어의 새로운 전환기와 화제의 대상되어 남정네나 구경꾼들이 날마다 몰려와 기웃거렸다고 한다. 당시의 퍼머 값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도록 고가였는데 한번 하는데 쌀두섬이었다고 한다.

마셜 웨이브 스타일이나 전발은 기생이나 마담 및 영화배우들 사이에서 먼저 유행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 당시 전발의 기계는 독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하는 고가(高價)이었다. 그래서 극소수의 미용실에서만 전발을 하였다. 83)

그래서 아이롱을 사용하는 미용실이 더 많았으며, 당시 미용실에서도 퍼머뿐만 아니라 아이론, 마사지, 염색, 메뉴큐어(네일)등을 하였기에 일반사람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유행스타일로는 단발머리에 약간의 웨이브를 넣은 스타일과 긴 머리를 자르고 퍼머넌트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발이나 아이론을 이용한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가 유행되었고, 초장기에는 곱슬곱슬한 퍼머스타일이 시술되었고, 반년에 한 번 정도 시술될 만큼의 강한 웨이브의 퍼머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1930년대에서 1935년까지는 이마의 가장자리에 아무 장식도 하지 않고 모발을 그대로 둔채 머리모양을 만드는 아이롱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퍼머의 웨이브를 낸다음 알루미늄 셋팅기로 웨이브를 고정시켜 물결무늬의 마살웨이브를 만들어 냈다. 즉 옆가리마를 하고 바로 아래로 모발을 내려서 귀가 보

83) 신미용 1986 년 11 월 P.82.

이지 않게 귀 뒷부분에 크고 둥글둥글한 웨이브를 시술하는 기법이다.

불에 열을 가한 아이론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웨이브를 냈기 때문에 웨이브 컬이 훨씬 오래가고 머리길이는 더 길어졌다.

옆이나 가운데 가르마를 하고 어깨위로 웨이브 컬을 많이 넣거나 또한 평저웨이브처럼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며 우아한 모양의 웨이브에 옆가르마나 가운데 가르마를 하고 머리핀을 꽂은 스타일도 유행하였다. 강한 아이롱 웨이브에 의한 잘게 곱실거리는 아이롱 컬블록 스타일이 등장하였으며 롤이나 컬이 많은 인형의 머리와 같은 형태였다.

지금도 파마라 하면 뽀글뽀글이란 인식이 강하것이 이러한 연유이다.

파마가 일반여성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가든 일제 강점기 후반에는 파마에 대한 강력하게 배척하고 있는데 “배척할 것은 파마넨트이다. 머리를 찌지고 꼬부리고 하는 파마넨트가 요새 문제되어 있습니다만 어쨌건 외래의 이상스런 풍속을 숭내내지 말자’ 하는 소리는 결국 이 파마넨트를 은연중에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는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입니다. 외국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흉내내는 이 파마넨트 웨이브의 피해는 주목할 만 합니다.⁸⁴⁾

그리고 1940년에 ‘전발 엘리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건 실로 활활한 맵씨다. ‘파마넨트’는 위선 양장엔 절대로 필요하고 그 다음 조선치마를 길게 끌고 버신 신은 차림에도 멋들어지고 색채가 혼란스런 사복에도 잘 어울린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의 검은 윤기나는 머리를 현숙하게 빗서 엮을 때가 왔다. 아~ 유쾌하다. 인제는 일금 십원을 변통해 들고 미용원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유행에 뒤떨어진 아가씨가 아니다, 마담이 아니다.⁸⁵⁾ 고 하였다.

84) 조선일보 1938년 05월 03일자

85) 『조광』 제 6권 10호 조선일보사 1940년 PP.159.~160.

이는 전발의 폐단보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물자가 너무 부족하여 일본 군부의 압력하에 1940년에 국민정신총동원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본, 조선에 퍼머넌트를 금지 시켰을 뿐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는 전발(電髮)기계를 군수 물자로 공출해 갔다. 86)

이러한 전후사정으로 일본은 군수물자의 수급에 문제가 생겨 전기 및 모든 산업분야에 총비상조치로 여성들의 퍼머도 금하였던 것이다. 이 당시 일본에서의 여성단체에서는 “자기의 머리는 자기의 손으로” 라는 구호를 게시판에 붙였고, 길에서는 파마를 하지 맙시다.87) (그림-10)라고 계몽하였다. 외형상은 권유이나, 군수물자 수급으로 전발기계 및 쇠붙이 도구는 수거 대상이니 금지 조치와 같았다..

4) 해방과 파마의 유행(1945~1960)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국민정신총동원 위원회에서 금지했던 파마가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파마가 유행하자 이에 반대하는 소리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파마를 반대하는 보수적 태도에 대해 아무런 반박이 없었던 일제 강점기때와는 달리 긍정적인 반박이 나왔다.

여성 풍속에 대한 견해' 제하의 기사는 파마와 새로운 양장의 유행은 우리 영성복식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현재는 양장에 미숙하기는 하나, 무조건 비판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88)

86) 일본 신미용 1986년 11 월 호 P.82.

87) 일본 파마네트웨이브 액 공업조합 (1994년) 『SCIENCE of WAVE』 P.12. 소화 17년경 (사진/ 일본 매일신문사) 신미용출판사

파마 머리 모양과 어원에 대해서 1946년 우리말로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해방이 되자 붕기한 것이 머리이다. 소위(링그)라고 해서 머리가 툭툭거져
올라온 것인데 이걸 조선어사전에 삼입한다면 링그머리의(혹) 또는(뿔) 또는
(챙) 이라고 역(譯)한다.⁸⁸⁾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나 영화배우 및 기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머리형으
로 링고스타일이 있다. 이 스타일은 앞머리의 뺑부위를 잘라 위로 원롤형을
볼륨을 주어 위로 향하게 시술한 것으로 뒷머리는 셋팅롤을 맡아서 앞머리와
비슷한 바깥말음 웨이브를 시술한 것이다.(그림-11)

링고스타일은 한복이나 양장 차림에도 잘 어울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까지도 인기있는 스타일로 고정되었다. 이 세팅웨이브는 세팅롤을 기본말기
로 하여 아이롱으로 마무리 시술하여 다룬 스타일이다.

머리를 완성할 때 막대기 모양의 덧모를 심으로 해서 모발을 말아 감도록 하
는 것인데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으며 부드러운 느낌이 나게 하였다.

세팅롤에 의한 웨이브의 연결과 볼륨에 의해 다양한 스타일을 시술하여 폭
넓은 연령층에서 유행하였다.

또한 아이론웨이브는 아이롱으로 머리전체를 2~3번 강하게 컬블록을 만든
후 모발에 머릿기름을 바르고 손으로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연출하여 보
고, 빗으로 시술할 부위를 백콤처리를 하여 빗으로 브러싱하여 스타일을 만
들어 시술하였다. (그림-12)

스타일의 모양은 세팅을 한 것과 유사하며 모발의 웨이브의 움직임이 아름
다운 컬블록 스타일이었다.

모발의 기장과 컬의 강약및 시술의 기술에 따라 여러 가지 느낌의 웨이브
머리를 연출하였으며, 앙글레즈 스타일과 유사한 스타일은 광복 초기까지 젊

88) 『부인』 1948년 4월호 P.36.

89) 『신천지』 1946년 5월호 P.154.

은 여성들에게 유행되었다.

그리고 모발에 약간의 레이어커트를 하여 아이롱웨이브를 말아 레이어 커트에 의하여 표면으로 웨이브의 연결을 일치시키고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있는 스타일로 여러 머리기장에 응용되어 유행하였다.

그리고 광복 후에 미용업에 종사하였던 여성들의 계층은 신여성이거나 공무원의 부인이거나 일본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였던 거류지에 존재했던 일본인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던 한국(조선)여성들에 의해서 영업되어졌다.

일찍기 신교육이나 신문물을 먼저 접할 수 있는 계층에서 미용업을 시작하였고, 이들 중 임춘직은 일제시대 일본 야마노 아이꼬(山田愛子)미용학교에서 유학하여 귀국하였고, 광복이 되면서 각자 미용실을 경영하던 사람들이 미용업의 권익보호와 친목을 위해서 미용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각 시도 단위로 조합 형식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였는데 서울이 먼저 조직을 구성하였고, 부산, 대구, 경기도가 때를 같이하여 조직을 결정하였다.

미용조합의 결성과 더불어 미용학원의 개설이었는데 처음으로 오엽주가 먼저 미용학원을 개설하였고, 그 뒤를 이어 임형선의 예림 미용학원과 권정희가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미용인을 배출하였다.

학원수료증 만으로 미용실을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용인의 질적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서울시 미용조합 연합회 임원들은 일본처럼 미용자격시험을 응시해서 미용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1947년 미용자격시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시험과목으로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였으며 과목으로는 환경위생중 주로 소독법에 관한 것이었고 실기로는 핑거웨이브 세트퍼머였다.

감독은 서울시 위생과에서 하였고, 광복 후 3년이 지난 1948년 10월1일 서울 시청에서 서울시 제1회 미용사 자격시험 및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준비

위원들도 다 같이 시험을 보아서 합격을 하였다.

얼마의 기간 동안은 지역에 따라 달리 학원의 수료증과 자격시험 합격증이 있어야 개업할 수 있었다.

5) 한국전쟁과 서구의 영향(1950~1960)

1950년대에 전쟁이 발발하여 한국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는 사치를 엄격히 단속하고 계몽을 하였지만, 피난지인 부산에서 여성들의 사치로 인하여 파마가 더 붐을 일으켰다.

첫째 이유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심리상태로 쓰고 죽자는 것과 둘째로는 남편의 군정집 및 가난한 피난 살림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직업여성으로 나서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기퍼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북한의 단전으로 인하여 전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불을 사용해서 퍼머를 가는 기구를 개발하였는데, 지금의 번개탄과 비슷한 것으로 손가락 크기만한 숯을 만들어 불을 붙여 퍼머집게의 양쪽에 넣어 은박지를 대고 머리를 말아서 퍼머를 하였다. 이를 가봉파마 또는 불퍼머라 불렀다. 그러나 이 가봉파마는 숯으로 인하여 불 붙은 재가 옷에 튀어 옷이 상하기 다반사였고,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아 모발이 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숯불에 의한 퍼머머리가 대단히 유행하였고 한국전쟁 후 사회가 안정화 됨에 따라 여성의 헤어스타일도 점차 다양화되고 계절이나 연령에 따라 다양한 헤어디자인도 소개가 되었다. 또한 유엔의 한국전쟁 참여로 외국잡지나 영화가 한국에 많이 유입되면서 여성들의 의복과 생활방식 및 헤어스타일이 급격히 서구화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에는 파마가 매우 다양하게 유행하였다.

부인경향이라는 잡지에서는 이를 양발, 즉 서양머리라 하고 12자지를 소개하였다. 90)(그림-13)

1951년에는 푸들스타일이 소개 되었고, 1953년에는 남성적인 짧은머리인 이탈리아인 보이라고 불리우는 서구스타일이 소개되기도 하였고, 1954년에는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헵번의 짧은커트가 유행하였다.

이러한 서구의 보브스타일의 소개로 인하여, 1954년 12월 동아일보에는 “머리의 개성을 살리도록” 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고 있다.

“ 심플한 숏트헤어는 긴 머리보다는 훨씬 활동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줍니다. 머리같은 생머리인 채 두지말고 머리 전체에 부드러운 웨이브가 생기게 해 줍니다. 꽤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하실 수가 있는 컬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 머리는 목덜미를 곱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복보다는 양장에 더 잘 어울리는 머리지만 얇전하게 커트하고 말아 올리면 한복에도 잘 어울리는 원 롤 스타일이 됩니다.” 91)

이러한 신문기사의 내용은 당시 아직까지도 긴머리의 여성이 많아 사회계몽적으로 한국여성들에게 짧은머리의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소개하여 널리 장려하였다.

1955년에는 포니테일(Pony Tail)스타일이 손질도 간단하고 어려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을 뿐아니라 긴 S형의 웨이브가 매력인적 섹시스타일과 귀를 덮는 미듬 단발스타일의 여성스러움을 연출한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1958년에는 짧은머리가 없어지고 긴머리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웨이브를 이용한 풍성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었다.

이후 웨이브의 유행이 줄어들면서 1959년부터 프랑스의 미용조합에서 발표한 헤어스타일로서 세계적으로 엠파이어스타일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국내

90) 『부인경향』 1950년 3월호 P.40.

91) 동아일보 1954년 12월

의 미용실에서는 백조머리라 칭하였으며, 크라운뿔이라고 불렀으며 1960년 크게 유행하였다.

이 스타일은 숏레이어 커트에 세팅과 아이롱에 의하여 아주 부드러운 웨이브 및 볼륨을 형성하고 백콤처리하여 마무리를 빗질하여 스타일을 완성했다.

이러한 유형의 스타일은 크라운 뿔 스타일이라고 부르며, 특히 정수리 부분의 볼륨을 강조하였고 양옆 귀선의 윗부분의 모양을 백조의 날개 같다, 하여 일명 백조머리라 부르기도 했다.

1960년에도 이와 비슷한 프린세스스타일도 유행을 했지만 백조라인의 머리는 1970년까지도 이 디자인을 응용하여 시술하고 있으며, 현대에서도 이를 응용하여 정수리 부분의 볼륨을 살린 보브스타일이 많은 여성들에게도 선호되고 있다.

그리고 1950년대에의 특징은 헤어스타일이 외국영화의 인기배우에 의하여 유행이 변한다는 것이다. 또는 잡지에 소개되는 모델들의 헤어스타일에 의해 하나의 군으로 유행스타일이 등장하였다가 모든 사람의 헤어패션의 유행이 순식간에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활발한 국제교류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특수층과 부유층이 주고객이었던 미용실이 대중화 되었고,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당연화 되어 일반 여성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외국의 문화와 헤어스타일이 급격히 다양해짐에 따라 미용사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여성들의 의식전환과 헤어스타일에 의한 여성의 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6) 앰파이어스타일과 히피의 영향(1961~1970)

1950년대 후기부터 60년대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앰파이어풍의 스타일로 정수리의 부위를 세팅으로 볼륨감과 웨이브를 넣어 백콤 및 부분가발을 덧대어 머리의 볼륨을 높게 시술하여 액센터를 주는 스타일로 국내에서도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외국의 앰파이어스타일이 유행하면서 국내의 가발 수출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57년 3월8일 日本東京神田의 학생회관에서 일본헤어디자인협회가 창립되면서 「新髮線」이라는 뉴헤어라인이라는 맨더린라인⁹²⁾과 로코코라인⁹³⁾의 두 작품이 발표되었다.⁹⁴⁾(그림-14)

일본헤어디자인협회 15주년기념으로 1957년~71년까지 뉴트랜드로 선정 발표되었던 작품을 소화 16년 9월27일 책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속의 헤어스타일과 한국의 1960년대 유행하였던 앰파이어스타일과 헤어디자인과 매우 같았는데, 이는 1960년대 국내 영화가 활성화되면서 영화배우들의 헤어스타일을 일본의 미용사들에게 자문 및 정보를 구하거나, 일본의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어 스타일링 하였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의 유행이 영화로 통해서 서구 및 일보과 같은 시기에 유행을 공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이 헤어스타일의 모양이 정수리 부위의 볼륨과 사이드 부위의 모발의 흐름이 백조의 날개와 비슷하여 백조머리라 불렀고, 다른 말로는 크라운 붐 스타일일이라고 했다.(그림-15)

자유로운 사상에 고취된 다수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관습과 고정관념에

92) 포르투갈어 「mandarin」; 중국 청조의 고급관리, 중국풍의 뜻

93) 프랑스어 「rococo」; 18세기경 프랑스에서 유행한 미술의 양식

94) 『髪の あゆみ』(1971년) 일본헤어디자인협회 15주년기념 P.13.

서 벗어나 특유한 삶의 방식을 전개하고 사회·미니 스커트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패션의 일반적인 주류는, 활동적이고 단순하며 실용적인 스타일로 젊은층의 감각에 맞춘 의상이었다.

젊은 감각이 사회에 만연하여 미니멀리즘 사상이 부각되면서 패션에서 이를 반영한 미니스커트가 선보였는데, 1965년 영국의 디자이너 메리 퀀트(Mary Quant)와 진 뮤어(Jean Muir)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소개함으로써 여성들의 애호를 받기 시작하였다.

미니 스커트는 가냘픈 몸매의 인기 모델이었던 트위기(Twiggy)가 자주 입고 등장하였는데, 트위기의 헤어스타일인 짧은 단발머리도 그녀의 인기와 함께 많은 여성들이 모방하였다.⁹⁵⁾

국내에서는 1967년 인기가수 윤복희가 미국에서 단발머리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귀국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당시 국내 실정으로는 대단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갸마른 몸매에 다리가 훤히 보이는 짧은 미니 스커트 차림으로 TV에 출연하였다. 이와 같은 윤복희의 패션스타일은 국내 젊은 여성들 사이에 큰 영향을 주었고, 당시 세계적인 유행이었던 단발머리와 미니스커트의 붐이 크게 불어 경찰이 미니스커트의 길이가 무릎 위 30cm 이상까지 올라간 대담한 마이크로 미니가 등장하자 풍속사범의 단속대상이 되어, 미니와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의 경우 무릎 위 17cm 이상은 경범죄로 처벌되었다.⁹⁶⁾

그리고 젊은이들이 확고한 위치에 자리하게 된 이 시기에는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독특한 청년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대중문화의 발달과 음악에 대한 인기와 이에 대한 대중 스타의 모방 등이 뒤따랐다. 로큰롤(rock'n roll)이 비틀즈(Beatles)와 롤링스톤즈(Rolling Stones)에 의해 전세계 젊은이

95) 박민여 편(2002년) 『패션 현대 패션 100년』 교문사 P. 215.

96) 조선일보 1972년 3월 11일

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음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패션은 전세계적인 모방 대상이었다.

초기 비틀즈는 에드워드 시대를 연상케하는 단정한 복장 스타일, 즉 모즈룩을 애용함으로써 비틀즈 음악의 대대적인 인기와 함께 의상도 유행시켰다.

1963년 비틀즈를 처음 등용한 매니저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할 무렵,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가죽 재킷 대신 피에르 가르맹의 칼라 없는 수트를 입혔고 머리는 동그랗게 잘랐다.

1960년대 후반의 비틀즈는 히피적 영향인 특성이 강하였는데, 이들은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자신들의 의지가 스타일에도 나타난 것이다.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의 긴머리나 켈시 부츠, 선글라스, 깃발 무늬, 목수건등은 히피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한국에서도 비틀즈의 인기가 상승함으로써 비틀즈를 모방한 히피스타일의 장발이 유행하였고 정부에서는 히피족과 그들의 장발 역시 미니스커트 못지 않은 ‘퇴폐풍조’의 단속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단속 이유는 장발이 보는 이에게 혐오감과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이었고, 회사에서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안전사고가 높았으며, 1970년부터 단속반에 걸리는 즉시 그 자리에서 강제로 머리를 잘리거나 일단 검거된 후 유치장에서 클리퍼로 한쪽 머리만 깎는 등 강제 조치를 하였다.

예를 들면 1970년 8월 서울시경이 더벅머리 청소년 677명을 검거하여 그 중 27명을 즉심에 넘기고 나머지는 머리를 짧게 잘라 돌려보냈으며, 1971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히피족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출연금지를 지시하는 등 마스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1972년에는 서울 유흥업소에서도 자체정화를 이유로 장발족의 출입을 금지 시켰다.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귀를 덮을 정도의 긴 장발이 유행해 강제단속을 하였다. 1970년에는 거리에서 삭발을 시작하였으며, 1973년에는 전국적으로 장

발족을 단속하였으나,⁹⁷⁾ 그 인기는 지속되었다.

7) 비달사순 스타일의 유행 (1971~1980)

1970년대에는 지금까지의 프랑스 현대미용에서 영국의 비달사순의 미용 텍스처가 소개되는 시기였다. 비달사순의 미용풍이 국내 소개로 커트의 개념이 머리를 자른다는 개념에서, 헤어커트를 각도에 의해 나누어서 기하학적으로 커트한다는 개념이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는 해외로 미용연수를 떠나거나 해외의 미용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에 미니스커트와 함께 비달사순이라는 헤어드레스에 의해 뉴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지금까지의 헤어의 흐름은 업스타일의 유형인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스타일이었다면, 뉴헤어트렌드는 계산에 의한 기하학적인 커트의 기법에 의하여 자연스런 흐름을 살린 새로운 세계의 커트 디자인이었다.

비달사순의 커트기법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에도 소개가 되기 시작하였다. 비달사순의 천재적인 재능은 기업명으로 남아 헤어패션과 뷰티아카데미의 대명사로 되어 있다.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비달사순의 커트가 새로운 경향의 헤어스타일로 퍼져 나갔으며, 헤어스타일 유행의 메커니즘은 거의 비달사순에 독점된 느낌이었다.

1970년 중반부터는 비달사순풍을 모방한 여러 헤어디자이너들이 각국에서 자기 기술화하여 뉴트렌드의 창조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63년 영어, 불어, 독어, 이태리 등 여러 언어권에서 혁신적인 커트를

97) 이만열 (1985) 한국사 연표,』 역민사 PP. 337~ 345.

보브(Bob)라는 말로 묘사되어 유럽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보브의 각종 스타일은 비탈사순에 소속되어 있는 헤어드레스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국내에서도 1970년은 커트의 유행이 대단하였고, 커트 디자인의 다양화에 의한 개성화를 추구하는 여성 헤어패션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리고 경제개발추진으로 여성의 노동력이 확대됨으로써 여성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70년대 초기에 유행한 커트로는 쉐기커트를 들 수있는데,(그림-17.48) 이 커트는 뒷목덜미 부위에 길게 커트한 것으로 한동안 유행하여 국내에서는 일명 거지커트라 불렸다. 이 쉐기라는 말은 원래 거칠다는 뜻의 말인데 실지로는 말의 뜻과는 달리 이 커트기법은 아주 섬세하여 어느쪽에서 머리를 선을 보더라도 그 선이 일정하고 가지런하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영국 가수 비틀즈의 영향으로 남자들의 히피풍의 장발이 유행하였고, 청바지와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 청바지문화라는 새로운 서구문화가 유행되었다.

정부에서는 60년말부터 70년대 초반기까지도 히피풍의 남자들을 경찰서에서 클리퍼로 머리를 밀고 훈방조치를 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남성들의 히피스타일은 당시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던 짧은 보브스타일과 비슷하여 헤어스타일만으로 성별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구조의 다양화로 인하여 여성들의 노동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간결한 헤어스타일이 사회구조 속에서도 원하였고, 여성들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국내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 머쉬룸(mushroom)의(그림-36.37)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서양 버섯 종류에 이같은 이름이 쓰여지고 있으며, 이 스타일은 숏트에서 긴머리까지 기장에 따라

변화가 다양한 스타일이며 머리의 흐름이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흘러서 옆이 넓게 되며 모발 끝이 안쪽을 향해서 모아진 실루엣의 스타일로 중세의 승려 머리 스타일에서 발달한 것이다.

머쉬룸스타일은 심플한 실루엣으로 기능성을 지니면서도 여자다움을 잃지 않는 디자인성을 가져 여성들에게 유행되었다.

이 머쉬룸스타일과 반대되는 모양으로 엄브렐라(umbrella)스타일이(그림-46.47) 있는데 이것은 파라솔을 편 모양의 실루엣으로 머리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자연스럽게 드라이 한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70년중반 80년대에 걸쳐 여러차례 소개되었으나 그다지 인기는 없었다.

1970년대 말부터 불규칙 불균형적인 정리되는 안은 듯한 헤어스타일이 유행되기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의 헤어스타일은 비탈사순의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가위의 커트로 여성미를 살려 만든 것이었는데, 이 헤어스타일은 완전히 '형'에서 탈피하여 디자인된 커터스타일이다. 콘케이브 커트라고 불리어진 이 커트는 1979년 미용연구구가 강형숙이 낸 국내 최초의 헤어창작집에서 소개되었다.

이 콘케이브커트는 정돈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셀루엣이긴 하나 정면에서 보면 아주 경제한 흐름이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 헤어스타일의 특징은 손질이 쉽고 얼굴라인의 부드러움에 의해 여성의 귀여운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며, 헤어스타일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의한 흐름과 불규칙의 조화와 모발의 질감에 포인트를 준 패션적 스타일이다. 지금은 폭 넓은 연령층에서 기본적인 헤어스타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70년대 말에 유행하기 시작한 디스코 머리라 불리우던 스타일은 이 콘케이브에서 응용되어 발생되어 유행된 것이다.⁹⁸⁾

1971년 소피라고 불리우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고대의 이집트풍의

98) 『한국생활문화 100년』 (1994년) 태평양50년사 부록 PP.104~ 110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고품격적이며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의 실루엣의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이 스타일의 패턴은 완전한 아름다움을 구하는데 끝이 없다 하였고, 1940년대의 서구의 여성들 사이에 사랑을 받은 스타일로 계속 발전하여 현대적인 느낌과 동양적인 감정과 서양적인 느낌을 동시에 만족을 주는 스타일이며 보브 및 베이지보이의 조화에 의해 재창출된 새로운 느낌을 주는 스타일로서 많은 여성들에게 유행되었다가 국내에서도 70년에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받았으며, 그 당시 외국에서 이 스타일을 소피라 불렀다.99)(그림-16)

산업의 발달로 사회구조의 복잡화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점점 다양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간편한 머리가 선호되었다. 지금까지의 세팅과 아이롱에 의한 웨이브머리가 점점 사라지고 블로우 드라이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구와 새로운 시술 방법에 의해 더욱 자연스럽게 머리의 움직임이 아름다운 웨이브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국내에서는 바람머리라고 불리어졌다.

국내 최초로 드라이어 시술 방법을 소개한 헤어드레스는 재미교포인 홍계남에 의해서였다.99)

드라이 시술 방법이 소개되자 각 미용실에서는 이 새로운 기구에 의한 새로운 시술 방법을 배워서 고객들에게 시술하였는데, 드라이어에 의한 바람머리 스타일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 블루 드라이의 브러쉬를 고안한 미용가는 영국의 헤럴드 레이턴이다. 이 사람은 젤랄 오스틴, 레온 살들러, 비달사순 등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인물로 전 세계에 미용계의 혁신가로 알려진 사람이다.

이 당시 정확한 블런트(blunt)커트와 말끔한 블로우 테크닉에 의한 영국 미용의 우아한 스타일에 매료된 세계의 여성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그 테크닉

99) 『髪のあゆみ』(1971년) 일본헤어디자인협회 P.98.

을 살려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다.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얼굴형에 따른 디자인 커트와 그에 따라 퍼머스타일이 유행하였고, 퍼머스타일에 블로우 드라이를 가미한 부드럽고 유연한 헤어스타일을 하였다. 차츰 여성들의 사회진출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머리손질이 간단하고 간편한 스타일로 퍼머를 많이 선호하게 되었다.

바디 퍼머라고 부르는 자연스런 웨이브가 있는 퍼머가 그것인데 머리카락 끝에만 웨이브나 컬을 만들어 언뜻 보기에는 약간 웨이브가 진 반곱슬머리처럼 보인다. 이 퍼머의 특징은 샴푸 후 스스로 손질하여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젊은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서구의 사람들은 컷 & 블루드라이어 만 하더라도 헤어 스타일의 연출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한국사람들의 특징은 뒷머리가 납작하고 정수리 부위와 크라운 부위가 납작하여 커트만으로 짧은 보브 스타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드라이의 출현으로 드라이어 시술 방법이 크게 인기를 끌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 사이의 인식으로는 컷 & 파마 & 드라이어의 조합에 의해 헤어스타일이 완성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당시 헤어스타일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은 느낌의 바람머리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한국, 일본 사람들의 보디파마의 개념은 볼륨을 살리기 위한 기본적 폼이라 생각하는 것이며, 서구에서는 자연스런 웨이브의 퍼머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

8) 퍼머의 유행과 미용도서 출판의 활발(1981~1995)

1980년대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대였다. 86년 개최된 아시아 게임과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행사는 해외여행의 자유

화와 같은 개방정책을 발전시켜 국제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문화 접촉 기회를 증가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수출이 증가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도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함께 여성의 소비성향과 여가를 중시하게 되었으며, 개인의 취향도 감성화 다양화 개성화되어 이러한 요구도 부응하는 고감도의 패션산업도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유행의 흐름은 다변화 되었고, 패션 중에서도 미용의 평가가 높아짐에 따라 미용기술의 해외도서와 헤어디자인 다양한 미용기술이 해외로부터 소개됨으로써 헤어의 패션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80년대에는 커트와 퍼머의 디자인이 무척 다양해졌고,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미용기구도 많이 출시 되었다.

커트로선 비탈삭슨의 하이파이프 스타일이 강세를 보였으며, 퍼머로는 간결하고 단정한 스타일에서 머릿결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듯한 퍼머스타일과 강한 웨이브의 스타일이 다양한 길이와 디자인에 의해 유행되었다. 그리고 1984년부터는 가위와 전기클리퍼를 사용한 커트가 유행함에 따라 클리프가 널리 사용되었다.

1980년대 초에는 여대생이나 직장여성들 중심으로 클리퍼나 레이저를 병행한 핑크헤어 또는 디스코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유행의 흐름을 보여주는 갖가지 패션 가운데 헤어의 비중이 점점 더 중요시됨에 따라, 헤어드레스의 감성과 센스가 더욱 비중을 발하였고, 커트와 퍼머의 디자인이 다양해졌고,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미용기구도 많이 선을 보였고, 다양한 커트 테크닉 디자인 도서와 각종 퍼머 룩트의 등장으로 다양한 보브스타일 및 다양한 질감과 감성을 가진 퍼머디자인이 소개되었다.

1984년도부터 가위와 클리퍼의 병행 사용하여 시술한 커트 디자인이 유행

함에 따라 헤어 디자인의 클리퍼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클리프에 의한 여성 숏보브 스타일도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많은 미용인들이 국제대회나 헤어쇼를 참가하였고 세계 유명 미용가들의 학교인 영국의 비달작슨과 알란 인터내셔널, 토니앤 가이, 미국의 피포트 포인트, 일본의 야마노, 동경미용전문학교 등에서 미용연수를 하고 돌아왔으며, 80~90년대에는 주로 일본으로 제일 많은 미용사들이 연수를 나갔다.

세계 각국의 새로운 헤어 컬렉션을 접한 국내의 미용사들은 해외에 유행하는 스타일을 고객들에게 시술하여 세계유행의 폭을 점차 좁혀 나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용의 세계화라는 인식이 미용인에게 보급되면서 미용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헤어무스와 젤 및 스프레이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앞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가볍게 풀어 흘러내린 듯한 긴 머리의 퍼머스타일에 윤기나고 부드러운 질감과 자연스럽게 찰랑거리는 스트레이트스타일이나 곱슬곱슬하게 한 퍼머나 자연스러운 웨이브나 여러 종류의 웨이브 파마를 한 후 앞머리 뺑부분을 드라이로 세워 스타일링제를 사용하여 높이높이 세우고 다녔는데, 누가 서로 높게 하였는가 자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가씨들 사이에는 자손심머리하며 솟음머리가 상할까 만지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공작 꼬리 모양 같다 하여 공작머리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스타일링 미용제품이 많이 출시 되었다. 스타일링을 하는 두발 제품에 의해 촉촉이 젖은 듯한 윤기 나는 머리형은 프랑스 미용가 장 루이 다비드에 의해 소개되었다. 핑키스타일도 선보여 뽀뽀하게 스타일링제로 세웠다.

그리고 무스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머리 웨이브나 스타일을 세팅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었고, 뒷머리를 기르거나 포니테일형으로 묶고 프린지만 스타일링제로 촉촉한 느낌이 나게 하거나 볼륨 및 세워서 여러 가지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머리핀이나 리본도 유행하여 새로운 헤어패션의 보조 악세사리로 하나의 패션으로 그 자리를 잡아 나갔다.

1986년은 세계 미용계의 황제라는 프랑스의 알렉산드 드 파리가 한국 미용계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매년 입생 로랑과 헤어 패션을 발표하는 그의 우아하고 매끄러운 머릿결의 질감을 업 스타일의 작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국내의 각 TV와 신문에서 그에 대하여 크게 비중을 두어 실었으며 이로 인하여 패션계에서 미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1987년에도 이탈리아의 지지 간디니가 한국에서 세미나 및 작품발표회를 가졌는데 한국에 포워드(forward)스타일을 소개하였다. 이 스타일은 1986년 봄 프랑스 고등미용조합이 봄시즌에 발표한 작품으로 커트 테크닉을 바탕으로 하여 극단적인 레이어 층머리를 만드는 웨이브 커트였다. 앞머리와 얼굴 둘레의 머리끝에 섬세함을 내기 위하여 시저를 사용해서 테이퍼링하여 모발 끝을 가볍게 처리하여 여성의 우아한 미와 섹시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¹⁰⁰⁾

1980년대부터 미용 텍스처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지방의 소도시의 미용사들에게도 선진 미용기술을 접하게 되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미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큰도시로 가야만 했었고, 부산같은 경우는 일본행 보따리장수에 부탁을 하여 일본의 미용서적을 구입하거나 보수동 헌책방에서 외국도서를 구입하여 선진기술 및 스타일을 발 빠르게 재현하였다.

1980년 후반기에 맥기픽에서 미용스타일집(集)인 뷰티 웨이란 제목으로 시

100) 민봉기 편 (1994) 『한국 생활 문화 100년』 P.113.

리즈로 출판하여 전국 각 미용재료상을 통하여 판매되었는데, 헤어스타일의 내용이 아주 방대하여 당시 미용실의 선진헤어스타일의 유행을 주도한 큰 핵심의 하나였으며, 이 책을 보유하지 않은 미용실이 없을 정도로 미용계의 인기 도서였다. 80~90년도의 유행스타일을 맥기픽에서 출판한 뷰티 웨이 시리즈(5권) 책안에 모두 소개 되어있으며, 일본의 유명 헤어디자이너의 작품을 엄선하여 만든 스타일북으로 미용 컷 및 업 스타일의 기술적인 부분도 실어 헤어살롱에서 많은 미용사들이 이 책을 참고로 하여 헤어스타일을 시술하였으며, 고객에게 책의 스타일의 모델을 보여주고 카운터셀링도 하였던 것이다.

스타일의 내용을 분류 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숏헤어 스타일, 보브 앤 세미 롱 스타일, 롱 스타일, 각종 디자인의 퍼머 스타일, 업스타일, 셋팅스타일 등을 소개하여 80~90년대의 유행을 주도한 시리즈북이었고, 미용사들도 도서에 의한 기술 습득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미용도서 구입에 붐을 일으켰다.

1990년대에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지에서 많은 헤어스타일의 발표와 함께 세계 각국의 헤어텍스처 북의 발간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80~90년대 초기 국내에서는 맥, 아바, IBM, 생경의료텍 등에서 많은 미용기술도서가 출판되었고, 해외도서로는 일본의 신미용, 토모토모, 미용기술, 백합초, 헤어모드등이 많이 수입되었다.

이 많은 도서의 종류에 의해서 시대적으로 경제의 풍요로움과 함께 여성들의 개성을 추구하는 풍조가 정착되는 것과 맞물려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연출을 하게 된 밑 바탕이 되었다.

80년대를 이어 90년대에도 숏퍼머, 세미퍼머, 롱헤어퍼머, 롤스트레이트 퍼머 등 퍼머에도 이름을 다 거론을 하기 힘들 정도로 유행을 하였으며, 퍼머에 대한 텍스처의 소개도 많았다.

퍼머의 유행과 함께 산업기술의 발달로 퍼머약품의 기술의 향상 및 석유화

학 부분의 프락스틱 및 금형의 발달로 파마루트의 제조 기술의 향상 되어 수많은 디자인의 퍼머루트의 개발로 힘입어 다양한 질감과 다양한 디자인의 웨이브의 퍼머가 유행되었다.

80~90년대 초기에는 여성들에게서 세미퍼머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각종 웬랭그스, 스타일에 파마루트를 기본말기, 세로말기, 머리끝선 말기, 블록말기, 루트 교차말기 등 수 많은 루트 감는 방법에 의한 다양한 질감과 리듬의 헤어스타일을 개인의 얼굴과 이미지에 맞게 연출하였고, 세미롱스타일과 롱 헤어스타일의 퍼머도 유행을 하였는데 루트의 호수를 달리한 강한웨이브나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연출하였고, 세로말기 트위스트말기, 기본말기등 루트의 시술방법에 의하여 스타일을 시술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1960년대의 복고풍으로 돌아가 크라운 부분에 볼륨을 처리한 스타일로 스탠드보브을 기초로하여 래저를 사용하여 톱부분에 길고 짧은의 질감을 내고 크라운 부위에 볼륨감을 내기 쉽도록 커터하여 현대 감각에 맞게 재연출한 롤스트레이트, 웨이브스트레이트가 20~30대의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비탈사슴의 파이프포인트 스타일을 응용한 숏레이어 보브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머리 뒷부위부터 커터한 스퀘어그라데이션스타일로 톱은 레이아 커터로 처리하며, 백(back)부위를 A라인으로 커트한 스타일로, 처음 유행할 당시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손질하는 방법을 즉 드라이하는 방법 스타링하는 방법등을 설명하면서 손쉽게 손질이 되게 하여 유행하였다.

1994년도에는 파마의 유행과 함께 머리가 얼굴로 쏠리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밴드와 핀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하나의 헤어 패션으로 자라잡아 헤어스타일의 연출에 보조적 패션용품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염색은 그전부터 하여 왔으나, 국내의 헤어염색의 공업이 미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기 서태지와 아이들이 머리를 원색의 매뉴큐어염색을 하여

TV에 등장하면서, 서태지의 인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여 한국의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크게 유행을 하였다.

그 당시로는 너무 뽀다하여 방송국으로 머리색을 정정하라는 시정의 말이 있어 다시 머리색을 수정하고 나왔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영향으로 염색의 유행은 아주 다양하게 대단히 유행되었으며, 2003년 지금까지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해외의 다국적 기업인 웰라, 로레알, 덕슨, 악세니아 및 국내의 여러 미용업계에서도 다양한 염색상품과 텍스처를 출시하면서 염색 패션에 더욱 발전을 불붙이고 있다.

90년대 유행한 코팅퍼머의 염색은 퍼머약에 코팅제를 조금 혼합하여 파머를 시술하면서 색을 내었는데, 와인색, 갈색이 많이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시술 방법은 처음으로 이화여대 앞 미용실 사이에서 퍼머액과 코팅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90년대 중반에 들어 열세팅퍼머와 매직아이롱 퍼머가 비슷하게 유행을 하였는데, 열세팅퍼머는 옛날의 전발의 퍼머와 비슷하며, 웨이브의 느낌이 세팅과 비슷하고 파마웨이브에 실증을 느낀 여성들이 많이 하였다.

먼저 열세팅퍼머 액을 처리한 다음 다양한 사이즈로 된 세라믹 룯드를 머리를 감아 세팅을 하여 전기에 의한 열을 발생하여 웨이브를 만드는 것으로 여성들은 세팅퍼머에 의한 자연스럽고 굵은 웨이브의 질감을 선호하였고, 스타일의 느낌 또한 여성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게 하였다.

이 시기와 비슷하게 유행한 맥직퍼머는 심한 곱슬머리를 펴기 위하여 등장한 퍼머였는데,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테크노 댄스의 춤이 머리를 좌우를 흔들면서 하였는데 매직퍼머한 머리의 느낌은 판스트레이트와 달리 머릿결이 직선으로 펴진 상태에서 큰 회전의 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테크노 댄스를 할시 여성의 섹시미가 배로 연출되기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 하듯이 크게 유행하였다.

테크노가수인 이정현이 TV에 나와 노래를 할 시 머리를 크게 흔들면서 댄스를 하였는데 그 섹시미가 일반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따라하게 됨으로써 매직퍼머가 크게 유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매직아이롱 퍼머는 1980년 말 일본에서 유행을 하였으나, 그 시술방법이 한국과 같이 건식법이 아니고, 퍼머액을 바른 상태의 습식법이였다. 그래서 모발이 많이 상하는 폐단이 있어 유행이 중단되었다가. 1990년 중반에 일본으로부터 매직아이롱 기기가 수입되면서 조금씩 시술되다가 가수 인순이의 매직아이롱 퍼머로 머리를 스트레이트를 하고 다니자 소문이 급작스럽게 나면서 미용실 마다 서로 이 시술방법을 배우려 하였고, 이러한 시기에 테크노댄스의 유행으로 테크노헤어 스타일이라 불릴 정도의 인기를 얻었다.

9) 패션헤어시대(1995~)

2000년대의 미용은 밀레니엄시대를 맞아 하나의 패션의 큰 부류로 등장하였다. 영세화하였던 미용용품 제조 회사체제에서 90년을 들어서 대형화 굴지의 글로벌화가 되었다.

국내의 몇 큰 기업체에서 해외 다국적기업과 기술제휴로 미용용품들을 독점화하며 거대화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를 중심으로 헤어쇼 및 뉴트랜드를 발표하면서 국내 미용계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다.

1990년대는 거대 미용 체인점이 국내 미용의 패션 흐름을 주도 했다면, 2000년대는 서서히 웰라, 로레알 같은 다국적기업의 큰 흐름에 주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흐름에 의해 미용의 패션의 국제 공유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되었고,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에서도 헤어월드 같은 헤어 전문사

이트가 창업되면서 미용의 트렌드나 미용정보가 일일정보시대에 접어 들었으며, 동아TV 같은 유선채널에서도 국내외의 미용정보와 뉴 트렌드를 방송하면 지식의 공유화와 정보의 공유화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1990년 초부터 해외유학을 하였던 나갔던 유학파들에 의해 해외의 다양한 미용기술과 트렌드를 가지고 미용 재교육을 오픈하여 미용의 재교육의 붐을 일으켰다.

2000년 초반기 재교육의 붐을 일으킨 유학파로는 일본동경미용전문학교 출신인 사이리, 동학교 출신인 권홍 등이 있다.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용유학을 갔었나, 대다수가 일주일 이내의 연수가 많았고, 90년대를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유학의 붐이 일어났으며, 이들이 귀국하면서 미용에 관한 많은 도서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의 헤어패션 유행으로는 쇼보브, 세미보브, 롱보브의 스타일에 여러 종류의 스트로크 기법에 의한 패션헤어가 유행을 하였다. 이 스타일은 1990년 말 한국 서울에 여행을 온 일본 여성들이 스트로크 기법에 바깥말을 한 패션헤어를 하고 들어 왔었다.

이를 본 여고생들이나 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초반의 여성들에 의해 패션헤어를 하기 시작하였다. TV의 CF에서 임은경이 패션헤어를 하여 선을 보였다. 그러나 염색을 하지 않아 패션헤어의 느낌까지는 내지는 못하였다.

패션헤어의 유행은 2000년대 초 배용준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겨울연가에서 세미 레이어 보브 머리에 리빙 시술 방법에 의하여 밝은 갈색의 염색을 하고, 머리의 끝선을 스트로크 기법에 의하여 머리의 끝선의 질감과 느낌을 불규칙한 웨이브의 흐름에 의해 가볍고 균형이 있는 스타일을 하였는데, 배용준의 인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패션헤어의 유행이 퍼져나갔다.

이 스타일은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이러한 패션헤어를 많이 시도하였다. 그리고 당시 동경미용전문학교 및 그 외의 학교에서도 이러한 패션헤어를 시

술하는 교육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서서히 일본에서 이러한 스타일이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90년말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도 유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미용인들이 스트로크 기법을 이용한 헤어패션을 시도한 것은 가위의 품질이 상질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가위기술에 의해 탄생된 기술이라고도 보아도 된다. 하나의 산업기술이 또 하나의 다른 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한 예를 보인 것이다.

이 패션 스타일과 함께 나타난 것이 디지털 퍼머기이다. 국내 미용 기구 판매 회사에서 디지털기기를 응용하여 패션헤어를 시술하는 것을 선을 보였고, 그리고 다양한 느낌의 웨이브를 시술하면서 패션헤어와 함께 유행하였다.

그리고 서태지가 해외에서의 장기 체류하다가 국내에 공연을 주최하면서 레게스타일에 붉은 인조실을 덧입혀 강렬한 붉은 색의 이미지로 출현하였다. 이후 흑인레게스타일의 머리가 더욱 유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에 와서는 모든 단어에 ‘디지털’를 붙인다는 것이다. 이를 붙이지 않으면 인터넷시대에 뒤쳐진 아날로그세대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인식되어 유행에 민감하게 되었으며, 현대의 사회구조에서는 사회구조에 맞는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굳어졌으며, 직장인의 헤어스타일, 연예인의 헤어스타일, 주부들의 헤어 스타일, 학생들의 헤어 스타일 등등 많은 조직과 조직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 헤어 스타일을 달리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헤어스타일로 직업을 구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의 미용은 다양한 스타일에 자기의 개성에 맞는 스타일과 유행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유행에 따라 변하는 그룹과 유행과 타협하면서 서서히 따라 가는 층으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것이며, 미용의 패션도 산업의 기술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의 변천에 따라 계속 발전하여 변해 갈 것이다.

IV 한국 미용패션의 발전에 연관된 해외 교육기관의 영향

1. 현대미용의 소개 - 마리 루이스

고종황제 시대와 일제강점기 시대에서의 미용기술은 일본으로부터 전파 되었으며,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문물을 받아 들이기 위하여, 개혁의 상징으로 남자들에게 일본의 전통머리를 금하고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이발기술을 보유한 사람도 없었고, 현대 미용기술을 보유한 사람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 왕궁의 궁내부에서는 프랑스인 마리-루이스를¹⁰¹⁾(그림-3) 일본으로 초청하여 황실 미용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일본의 현대미용 역사의 시작이었으며, 마리 루이스는 일본의 근대 미용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다.

프랑스에서 리몐징뽀도미용학교(リマンボト) 및 라뭏도미용학교(ラ・モト)에서 미용술, 미안술, 화장법, 화장품제조, 미용일반학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동학교에서 강사 및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일본 궁내부의 초청으로 일본 동경 유락초(有樂町)에 미용강습소를 설립하였다.

1912년의 궁내청에서 마리 루이스를 방문하여 일본 궁내부의 宮廷服裝의 고문격(顧問格)에¹⁰²⁾ 취임하여 황실의 가족들의 미용담당 일을 의뢰하고자 마리-루이스를 초청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올 것을 요청 받았다. 당시 일본은 패션의 양풍화가 급속히 밀려 들어오는데 궁내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머리양식을 변화하여야 겠다는, 궁내청의 판단으로 외국인 미용사를 초

101) 마리-루이스(1874-1956년) 일본 황실 담당 미용사. 프랑스인으로 일본 동경 신주꾸 마리-루이스 미용학원 및 마리-루이스미용실을 1913년(대정2년)에 창립하였고, 프랑스의 현대미용을 최초로 일본에 보급

102) 일본 황실에서 왕족들이 궁중에 의식이 있을 때 머리를 꾸며주는 관직

빙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12년에 마리-루이스는 일본으로 다시 건너와 82세까지 평생을 일본에서 살았다. 마리 루이스는 일본의 미용의 근대화에 지대한 공을 하였고 마셀 웨이브의 기술과 스타일을 일본에 보급하여 급속하게 양발시대를 열었다.

1913년의 일이다. 그리고 1918년에는 파마네트과를 설립하여 전발의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일본 동경 신주꾸의 마리 루이스 미용학원과 마리 루이스 미용실의 창립자인 마리-루이즈(1874~1956년)는 일본의 근대미용의 어머니라 불리우고 있으며, 일본에 처음으로 마셀 웨이브라는 새로운 신기술과 프랑스의 미용기술 및 스타일을 1913년에 처음 소개한 사람이다.

같은 시기에 동경여자미발학교(창립자 佐伯秀一)도 비슷한 시기에 설립하였는데 일본의 미용학교의 선구자라 부르고 있다. 이후 일본에서는 미용학교 설립이 붐을 일으켰다.

소화(昭和)에(1926~1989) 들어서 고베의 궁내우평(宮内宇平)도 프랑스에 유학하여 마셀에게 직접사사(直接私事)받은 후 귀국하여 현대 프랑스의 미용을 보급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다.

마리-루이스는 미용강습소(마리-루이스 미용강습학원 전신)을 동경 유락쵸에 설립한 후 미용강습소를 마리 루이스미용학교에서 다시 마리 루이스 미용여학교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18년에 미용업계에서 제일 먼저 파마네트과를 설립, 전발(電髮)의 기술교육에 힘쓴 선구자였으며, 미용업계에 놀라운 공적을 세워 일본의 근대미용의 어머니라 불리움이 부족하지 않다.

마리 루이스는 1874년 12월 프랑스인 스미스 알베르트루이(주일영국대사관부무관)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에게서 동경에서 태어났다. 일본 동경에서 18세까지 자라왔으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프랑스로 갔다.

1913년 마리루이스가 창립한 동경 유락조의 색리원(마리 루이스미용학교의 전신)이라는 미용실을 2층에 창립하였다. 미용강습소의 두가지의 모체가 되었고, 마리-루이스의 명성은 일본 전국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앞 올린머리와 웨이브가 있는 마셀 웨이브 스타일 및 일본 헤어패션의 발신의 중심적인 기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마리-루이스의 미용강습소는 마셀 웨이브 기술을(그림-4) 미용사에게 교육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마리-루이스미용전문학교라는 명칭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마리-루이스는 미용실·미용학교라는 두가지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양발기술을 보급하였고, 미용강습소는 학교라는 명칭은 얻지는 못하였지만 수업내용은 타 미용학교와 동등하게 하였다. 그러나 수업료만은 타학교에 비하여 고액이었다.

마리 루이스가 프랑스로부터 마셀 웨이브를 습득하여 왔을 때는 일본의 미용학교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새로운 기술이었다. 미용실의 새로운 영업메뉴에 추가될 당시 1913년의 일본의 헤어패션은 일본발과 약식일본발이라 부르는 모발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주류였다.

양발의 스타일이 계속하여 해외로부터 유입해 들어 왔으나, 처리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모발을 묶고 꼬우고 하는 등의 옛날 기술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한 시대에 마셀 웨이브에 대한 일본여성의 관심은 굉장히 높았고 새로운 양발에 의해서 한 세대를 유행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프랑스인 마리 루이스가 오기 전에는 옛 전통의 일본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마리 루이스에 의하여 현대 미용이 소개 되었으며, 필자는 당시의 조선에서도 마리 루이스 미용학교에서 마리 루이스가 보급한 기술을 습득한 미용사에 의해서, 일본 정부에서 시행한 조선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에 처음 이민 온 일본인 미용사에 의해서 현대 미용이 전달 되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1913년에 일본에 처음으로 프랑스로부터 현대미용이 전파되었는데, 한국은 일본에 프랑스인 마리-루이스에 의해 현대미용이 전파된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1923~25년 사이에 머리를 자르고 웨이브를 한 헤어스타일이 잡지나 신문 지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920년대 초기에 프랑스의 현대 미용이 소개 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된 현대미용은 프랑스인 마셀이 개발한 마셀 웨이브로 처음에는 당시 조선에 이주 온 일본인들의 거류지에서 미용업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개되어졌다.

조선에 일본인이 많이 거주 하였던 지역으로는 항구, 대도시, 공업지역으로, 당시 일본인이 제일 많이 거주했던 지역으로는 부산 그리고 포항, 인천, 서울, 평양, 함흥 등으로 이러한 일본인 거류 지역에서 현대미용이 소개 되었다.

이 당시 일본인 미용사들이 자기를 도와줄 나이 어린 여자 아이를 거류지 근처에 살고 있는 조선인에게 부탁하여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심부름을 하고 미용기술을 배울 여 아이들을 고용하였다. 이 시절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여, 기술보다 입하나 든다는 생각으로 일본인 미용실에 보내었다.¹⁰³⁾한다.

이것이 한국의 첫 현대미용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기술을 배운 여성들은 각자 독립하여 적은 솥을 하든가 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야매)¹⁰⁴⁾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전발이 도입된 것은 1918년이었는데 한국에서는 1920년대 서울 정동에서 백계노인 이란 분이 오엽주 이전에 전발의 기구를 수입하여 사람들에게 전발을 하였다고 한다.¹⁰⁵⁾ 그러면 한국에서는 1930년대에 오엽주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최초로 미용실을 개설

103) 김영자 증언 : 인터뷰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003년 3월)

104) 야매(야매) ; 가짜 정품이 아닌. 허가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105) 한국헤어변천사 1.2편 동아TV 2003년

하였는 것 보다 더 일찍기 서울 정동에서 백계노인이란 분이 전발의 기계를 수입하여 사람들 상대로 전발이란 파마를 하였는데, 백계노인이란 분이 오엽주보다 더 일찍기 일본을 유학하여 미용실을 개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 타당하다.

전발(電髮)은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시술 불가능 할 뿐 아니라 당시 독일과 미국에서 만 생산되었기 때문에 전발기계는 엄청난 고가(高價)였기 때문에 기술이 없이 시술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미용기술의 주종은 마셀웨이브, 세팅, 결발 등이 주종이었다. 일본이 1918년에 전발이라는 현대미용기술을 미국, 독일로부터 미용기구를 수입하여 마리-루이스 미용학교에서 일본 전역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106)했다

당시 조선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1920년대에 마셀-웨이브와 다른 퍼머 헤어스타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 1923~1924년경에 전발이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으로부터 현대미용이 전파되어 사람들로 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미용 요금 또한 만만치 않아, 나이 어린 여성들 사이에 미용기술을 배워 돈을 벌기 위한 욕심으로 일본인 미용실에 취직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107)한다.

1920-1960년대의 한국에 나타난 프랑스의 현대미용에서도 보브스타일과 숏 및 미듭 등 여러 스타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영국의 비달사슨 이전에 모두 존재하였다고 볼 수있다. 한국 현대미용은 순수 프랑스의 미용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가 지나서야 영국의 비달사슨의 미용 텍스처가 도입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최초 현대미용은 프랑스인 마리-루이스에 의해 1920년대경에 일본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 1970년

106) 신미용 1986년 11 월 호 P.82.

107) 김영자 인터뷰 : 서울 종로구 삼청동 (2003년)

영국의 비달사순이 소개 될 때까지 프랑스의 미용이 한국의 미용의 주류를 이루었다.,

2. 세계 미용패션 교육의 세계적 표준화-비달사순

미용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명성을 자랑하는 비달사순은 1960년대와 1970년대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차지한다.

비달사순의 첫 번째 독창적인 헤어디자인은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1959년에 그는 자신의 테크닉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헤어디자인을 그려내면서 명성을 얻었다.

1959년 세이프(the shape)라고(그림-17) 불리워진 이 스타일은 여성의 머리에 자연스러운 흘러내림을 준 최초의 커트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디자인은 목덜미를 드러내고 머릿결을 얼굴 앞으로 내놓음으로써, 머리와 얼굴선이 조화를 이루게 했으며, 비달사순이 그가 처음으로 선보인 진보적이고 발전된 스타일 중의 하나로서 당시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헤어디자인이었다.

그리고 1963년 비달사순과 매리퀀트는 패션쇼의 헤어연출을 위해 함께 작업을 했다. 매리 퀀트는 사순에게 모델의 머릿결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그것을 의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들어올리는 커트를 요구했다. 사순은 “그것을 모두 잘라버리자”고 제안했다. 퀀트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달사순의 아이디어에 의해 헤어디자인을 턱선의 원뿔그스에 뒷머리부위에 그라데이션의 레이어가 들어간 낸시 퀀 이라는 헤어디자인이 탄생하였는데, 처음 진보적인 사순의 보브스타일을 한 사람 중에 한명인 여배우 Nancy Kwan의 이름을 인용해 Kwan으로 불리게 된 이 스타일은 기존의 고존적인 헤어스타일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던 스타일이다.(그림-18)

사슨은 관의 스타일의 포인트는 “얼굴 옆 머리의 사선이 턱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체 골격에의 구조에 조화를 이루게 한 아이디어는 20~30년대의 바우하우스(Bauhaus)파에게서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레이스 코딩턴(Grace Coddington)이(그림-19) 패션쇼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하였을 때 관객들은 모델이 한 그레이스 코딩턴의 스타일의 새로운 커트에 놀라움을 표했으며, 이 헤어디자인의 사진은 모든 출판물에 실렸었다. 사슨의 열광적인 지지자였던 영국(Vogue)지 편집장 알리사 갈란드는 비달사슨에게 극찬을 하였다. 그러나 이 디자인이 대중의 많은 관심을 끌어내었지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야생의 사건(The Wild Affair)에 출연한 낸시 관에 의해서였다.

그녀는 적합한 헤어스타일을 요구했고 비달사슨은 그레이스 코딩턴의 스타일을 낸시 관에게 해주었으며, 테렌스 도노반이 촬영한 관의 새로운 헤어디자인이 영미판 ‘보그지’에 실리자 그 스타일은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된다. 영국판의 보그잡지사의 편집장은 “올해의 새로운 룩은 매우 견고하며, 건축적이고 목위 부분을 드러내거나 마치 실크처럼 스트레이트하면서 부드럽게 늘어지는 곡선을 지닌 비달사슨의 새로운 커트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¹⁰⁸⁾”라고 썼다. 이전까지 비달사슨의 보브헤어는 매리 쿼트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낸시 관”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서 여성들은 비달사슨의 짧은 보브헤어가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셋팅머리에서의 번거로움과 매주 혹은 매일 미용실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비달사슨은 많은 여성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하기를 원했고, 매우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선을 만들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한나

그리고 비달사슨은 그의 팀과 함께 계속하여 다양한 헤어디자인을 시도하

108) 뷰티라이프 (2003년 2호) P.213.

여였고, 쇼트, 미디엄, 롱, 비대칭, 한눈가리기, 스트레이트, 술이 성긴 형태, 곱슬곱슬한 형태, 뽀친머리, 앞머리가 늘어진 형태 등등 변화형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사슨의 보브헤어가 선보여진 30여년 동안, 그의 대표작들은 고전적인 패션으로 유지되기에 이른다. 이 스타일의 변형 가능성은 패션이 변함에 따라 헤어스타일도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1964년에 또 하나의 새로운 혁신을 선보였는데 “파이브 포인트”를(그림-20) 그레이스 코딩턴을 모델로 하여 기하학적인 헤어디자인을 하였는데, 이 스타일이 비달사슨의 디자인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으면서 이 디자인의 사진은 전세계에 전파되었다. 파이브 포인은 비달사슨의 국제적 성공에 있어서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클래식한 파이브 포인트 컷은 양옆과 뒤와 앞 모두 밸런스를 맞추기가 가장 어려운 컷트 중의 하나였다. 뒤는 긴 지점을 향해서 형태를 완성시켰으며 양옆은 레이어가 되어있으며 크라운에서부터 시작되는 깊은 프린지와 연결되는 각도로 되어있다. 이 컷트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당신의 자연스러운 목선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선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고 컷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선 주변의 길이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앞과 뒤의 모발을 중앙쪽으로 향하게 레이어링을 함으로써, 여성이 머리를 흔들면 머릿결은 흔들리다가 금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바우하우스 컷트라고 부르는 핵심이 모두 들어있는 순수 기하학이었습니다.¹⁰⁹⁾라고 비달사슨은 설명했다.

패션계에서 또 다른 비달사슨의 중요한 헤어디자인 개념으로 인정되는 비대칭(the asymmetric, 1964)은(그림-21) 모델 다내 브룩스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찾아 그로스베너 하우스(Grosvenor House)를 방문했을 때 탄생된 것으로 모델 다내 브룩스의 요청으로 컷팅 중에 아이디어가 생각나 만들어

109) 뷰티라이프 (2003년 2월 호) P.214.

진 것으로 머리 후두부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을 짧게 각진 프린지로 하고 다른 쪽은 긴 단발로 하여 커팅을 하여 연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달사슨의 초기 작업에는 극소수의 모델들만이 헤어커트를 허락을 했었다. 대부분의 잡지의 편집자와 패션디자이너들은 여전히 “유럽 전통 업스타일”을 더 많이 선호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모델들에게 연출한 헤어디자인은 거의 대부분은 사람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비달사슨과 그의 팀원이 디자인하여 스타일링을 한 가발이었다. 110)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짧은 머리가 쉽게 받아들여 진 것은 아니었다. 이 유로는 긴 머리는 여성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시대와 짧은 머리가 잠시 유행했던 엠파이어 시대를 제외하고는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짧은 머리를 한 적은 없었다.111)

그러므로 이때의 여성들은 단발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다. 그래서 앞과 옆은 단발 스타일로 하고 뒤는 길게 남겨두고 말아서 안으로 넣는 스타일이 나타나기도 했다.112) 또한 자신의 머리가 커팅되는 것을 보고 기절하는 여성들이 많아 미장원에 약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고, 미장원에서 여성들이 울고 나가는 경우라든가 남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여성들도 있었다고 한다.113) 이러한 이유로 하여 실제 머리에 커팅을 꺼려하여 패션모델들을 상대로 가발을 사용하여 스타일링 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 역시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1966년 디자이너 미라 손의 컬렉션을 통해 비달사슨은 이탈리아에 소개되었고 그는 새로운 헤어디자인을 선보였다. 페기 모피트가 의상을 입고

110) 뷰티라이프 (2003년 2월 호) P.214.

111) Phyllis Tortora & Keith Eubank(1989). A Surver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 P.289~299.

112) David Bond(1992), P.48.

113) Richard Corson(1971), P.512.

Acute Angle 커트를 했으며, Acute Angle은(그림-23) 1966년 오리지널 헤어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커트는 더욱 짧아지고 찰랑거리는 효과를 위해 층을 내었다. 양옆은 앞머리의 중앙부위와 삼각형을 이룸으로써 뒷머리의 기하학적인 테마로 이어졌다. 이 디자인의 특징은 날카롭고 예리한 각이 특징인 이 커팅은 비달사순의 Roger Thompson에 의해 창작되었다.

1964년 비달사순은 두 번째 미국방문이 이루어졌다.

인터크와이퍼의 초청을 받아 미국전역을 돌며 헤어드레서들에게 새로운 커트 시범을 보였다. 전세계의 선도적인 헤어드레서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그의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헤어드리싱은 헤어커팅이다. 헤어커팅의 목적은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다. 형태의 과학은 기하학이다. 커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잘 커트된 머리는 설령 물속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아름답게 보인다.¹¹⁴⁾라는 그의 메시지와 함께 비대칭 커트와 스퀘어 컬의 시범을 보여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 시범기간중에 비달사순은 리츠의 랑뱅 샤를르(Lanvin Charles of the Ritz)사의 회장인 리차드 살로몬(Richard Salomon)이 그를 미국으로 초청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비달사순은 리츠 샤를르와 합작으로 맨하탄에 살롱을 개설한다.

비달사순은 영국보다 문화적 차별이 없는 미국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데 매디슨 803번가에 살롱 개설 즈음에 뉴욕타임즈의 기사 안젤라 테일러는 ‘작년에 비틀즈가 전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 이래, 뉴욕의 여성들이 어떤 영국인에 대해서도 이처럼 열광한 적은 없었다...비달사순은 노래를 하거나 기타를 연주하지 않지만, 그의 커트는 쿠레지가 패션계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헤어드레싱에 혁명을 일으켰다.¹¹⁵⁾고 호평을 하였다.

114) 뷰티라이프 (2003년 2월 호) P.216

115) 뷰티라이프 (2003년 2월 호) P.216

1968년에 비달사순은 웰라와 함께 순회 쇼를 나섰는데, 비달사순은 쇼의 테마를 “사순의 5년(Five years of Sassoonery)”으로 하여 기하학적 커트의 발전과정을 쇼로 보여주었다.

영국 투어 몇 달 뒤에, 프랑스의 헤어드레서인 알렉산드르와 자크 데상쥬(Jacque Dessange)가 개최하는 연례행사인 ‘르 스타일 드 파리(Le Style de Paris)’에서 개최되었다. ‘르 스타일 드 파리’는 의상분야의 파리컬렉션과 같은 가치를 갖는 헤어컬렉션인데 비달사순은 외국인으로 최초로 초청되었다.

비달사순은 기하학적인 혁명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고 그의 스타일은 마침내 프랑스의 미용계에 인정을 받았다.

관트(매리관트), 관(낸시 관), 칸(엠마누엘 칸) 쇼트헤어, 1964년의 비대칭, (그림-21) 파이프포인트, 한눈을 가린 컷,(그림-22) 옹가로 커트 등이 주요한 커트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회고전에서 선보인 마지막 스타일은 비달사순과 그의 팀이 (Greek Goddess) 1967년에 개발한 그리스 여신 스타일이었다. 바로 이 특징적인 스타일이 비달사순의 두 번째 예술적 경로의 발전전 출발점이 되었다.

1970년대에 비달사순의 이름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저명인사가 되면서 그는 디자이너들 중에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 디자이너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패션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의 사인과 이니셜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자신만의 스타일과 발상에 자신의 고유한 상표를 붙이기 위해, 비달사순의 살롱은 북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 개설되었다. 그의 철학을 전파하는 아카데미가 설립되었고, 아름다운 머리를 연출하는 그의 방법은 규격화되어서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73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헤어드레싱이 여성의 침실에서 나와서 증권거래소에 입장 했다고 썼다. 사순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인물로 언급

되곤 했다. “ 비달사순은 그의 이름을 회사의 이미지로 만듦으로써, 그가 고용한 모든 스타일리스트들이 그의 명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비달사순의 존재는 모두에게 그리고 어느 살롱에나 스며들어 있다. 영국판 보그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는 1960년대 영국에서 자신의 시각적인 안목이 기업가적인 성공의 발판이 되었던 몇 안 되는 인물들 중의 하나이며,¹¹⁶⁾ 전 세계적으로 미용의 대명사인 메이커로 비달사순아카데미로 남았다.

비달사순은 세계적 명성을 얻고 1970년 초 비달사순아카데미를 영국에 설립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어깨 넘어로 미용기술을 배우던 시대에서 점차 도서관과 미용학원에서 기본부터 응용까지 고난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비달사순의 영향을 받아 가능하게 하였다.

일제시대 일본 미용사로부터 배워왔던 현대 미용기술은 일본에 최초로 현대미용을 보급한 프랑스인 마리-루이스에 의해 프랑스 미용기술을 습득하였다. 1988년 한미회에서 출판한 월드 뷰티의 커트기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 헤어디자이너의 컷기술과 영국의 런던의 헤어디자이너의 컷기술이 수록되어 있는데 한국의 일제강점기에 미용을 배웠던 분들의 커팅방법과 현재에도 존재하는 지방 변두리에서 흔히 쓰는 머리 전체적으로, 헤어 커터라인을 먼저 자르고, 커터 섹션을 뒤집어서 하는 방법과 가로 섹션을 많이 이용하여 커팅하여(그림-5) 헤어스타일을 완성하는 방법은 프랑스의 미용기술로 한국의 대다수의 미용사가 알게 모르게 프랑스 미용기술을 습득해 사용해 왔다. ¹¹⁷⁾ 1970년까지 한국에서도 잡지나 영화의 영향으로 영국 비달사순의 헤어스타일의 소개 되어 오다가, 1970년 이후 비달사순의 아카데미 설립과 함께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프랑스 미용 텍스처와 함께 비달사순의 텍스처가 여러 경로로 소개되면서 한국미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16) 뷰티라이프 (2003년 2월 호) P.217

117) 『월드뷰티』 한미회출판 1988년 참조

그리고“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특히 활동적인 여성들에게 머쉬룸이 즉 버섯모양의 헤어가 꾸준히 인기를 얻어 하나의 헤어스타일로 정착되었다.¹¹⁸⁾ 이러한 것은 사슨의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으며,

1970년에 일본에 비달사슨의 첫 방문의 일을 계기로 컷트 붐이 일어나 컷트 & 부로우를 할 수 있으면 일류라 하여 어느 미용실에서나 컷트 & 부로우는 것이 되어 버렸는데, 그 붐도 1975년경 절정이었고, 1976년의 삭슨이 두 번째 일본에 왔을 때는 이미 열기가 식었다. 그렇더라도 붐이 아주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삭슨 컷트는 기본 컷트 패턴으로 확실하게 정착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¹¹⁹⁾ 비달사슨은 두차례의 일본 방문으로 비달사슨의 텍스처를 현재까지 확실하게 일본 기본 컷트 패턴으로 기반을 잡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은 해외의 여행이 어려웠던 시기라 거리가 먼 영국보다, 거리가 가까운 일본으로부터 1970년대에 비달사슨의 텍스처가 도입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는 출판된 도서 및 사진자료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용사 실기 시험의 대부분이 영국의 미용기술 방식과 많은 연관이 있으며, 커팅 기술은 영국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부산의 미용사들 사이에는 일본행 보따리 장수하는 분들에게 부탁하여 일본잡지와 미용도서 및 미용기구를 주문하여 미용의 선진기술을 습득 하였다. 또 국제 항구도시의 특성상 1970~80년 당시 부산의 헤어 유행이 한국에서 제일 빠르다고 자부할 정도였다. 1970년대까지는 다양한 경로와 개인적 친분에 의해 일본 및 해외 미용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부산 미용인 및 주위 경상도 미용사들 사이에 의해서 일본에 소개된 사슨의 미용기술이 빠르게 전파 되었다.

118) 민봉기 (編) (1995) 『한국생활문화 100년』 P.108.

119) 『IBA 퍼머백과』 도서출판 이바 (일본 번역본) 1993년4월 P.06.

그리고 사슨의 미용기술을 한국에 최초로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일본인 최초로 비탈사슨의 유학을 한 가와시와 후미오의 작품이 한국의 지방 변두리 미용실까지 미용재료상에 의해서 사진포스트와 소량 분량의 텍스처로 소개되었다.

1980년대에 출판된 뷰티라이프에도 가와시와 후미오의 작품과 커팅기술이 소개 되어있다.(그림-6)

1980년 말경 무렵에 소개된 커터완성의 책에서 비탈사슨의 텍스처가 소개 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출판한 도서가 아니고 일본에서 일본인이 출판하였는데, 일본인의 모델로 다시 각색하여 출판된 도서로 한국에서 번역본으로 미용재료상을 통하여 보급되어 비탈사슨의 커팅기술이 한글로 된 하나의 단행본으로 소개되어 누구라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되었다. 소개된 내용은 비탈사슨의 기본 컷트의 4패턴으로 원랜스 컷트, 그라데이션 컷트(인 레이어), 레이어 컷트, 스퀘어 컷트가 있으며, 그리고 헤어디자인 라인 4패턴으로 는 멋쉬름, 이사도라, 평행보브, 스파니엘이 있으며, 그라데이션 보브의 5패턴이 있다. 그리고 16가지의 스타일의(그림-33~48) 소개와 커팅방법이 소개 되어 있는데,¹²⁰⁾ 비탈사슨의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미용기법을 이용하여 세계 어디서 누구라도 비탈사슨의 기법을 책만 보고도 미용기술을 혼자 습득하기 쉽게 하였다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누가 헤어디자인 작업을 하더라도 디자인의 재현을 쉽게 할 수 있게 기하학적인 도해의 원리를 접목 시켜 설명하였다.

이 도서는 일본인에 의해 일본에 비탈사슨의 미용기술을 보급하고자 출판되었던 것이다.

이 도서가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자 당시 조금이라도 구입시기가 늦어면 구입이 어려울 정도였으며, 당시 미용사들은 이외 미용 기술책이나 스타일북

120) 『커터완성』(번역판)(국내출판년도 ; 1980년대초경) 생경의료텍 출판

이 오면 예약을 해놓고 부탁을 해야 할 정도였다. 이러한 미용사들의 선진 미용을 배우겠다는 열정에 의해 많은 해외도서가 번역되어 소개 되었다.

이바출판에서 1991년에는 IBA컷트백과와 93년에는 퍼머백과을 미용도서로 출판하였는데, 이 또한 일본번역도서로 도서의 바탕기술과 스타일은 비탈사순의 텍스처의 주를 이루고 있다.

소개된 스타일로는 원렝그스, 톰보이, 브리-즈, 쟁, 다이애나, 하이포인트, 리젠트, 웨-비리젠트, 네오 지오메트릭, 오-바 다이렉션, 리플 등등의 스타일이 소개 되었다.

이 도서 또한 당시 미용계의 베스트셀러로 미용재료상에 가져다 놓기 바쁠 정도였다.

한국에서의 비탈사순의 기술보급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는 주로 스타일에 의한 소개였으며, 1980~90년대에는 비탈사순의 미용기술은 이렇듯 도서에 의해 국내에 많이 보급되었으며, 미용사들은 도서에 의해 해외선진 미용기술의 습득이 용이함을 알고 도서 수집에 붐이 일어났었다.

1990년대에는 비디오의 보급의 보편화로 비디오 테입에 의한 해외 및 국내의 유명 헤어디자인에 의해 미용기술 보급이 눈에 두드러 짐을 알수 있다. 이 당시에 비탈사순 및 토니엔 가이, 송자부 등등의 미용기술을 소개하는 비디오가 많이 소개되었는데 비디오는 도서의 한계성인 연속동작의 재현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기가 편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널리 보급되었다.

1990년대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수 및 유학을 영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지로 유학 및 연수를 갔었으나, 본격적으로 유학의 붐이 일어난 것은 1990년대 초기였으며, 일본의 동경미용전문학교 및 야마노미용전문학교와 영국의 비탈사순아카데미에 유학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본, 영국, 미국으로 출국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근래에 들어서 비탈사순의 원본의 고전적 스타일이 소개된 책자가

국내에서 출판되었다. 그러나 너무 소개가 늦었다. 한국의 초창기 미용계는 미용사들의 적극적인 배움의 노력에 의해 해외의 미용도서를 구입하여 기술을 습득하였고, 국제 라이선스 체결전에는 해외 및 일본의 도서를 번역하여 크고 작은 텍스처를 만들어, 해적판으로 보급되어 한국 선진미용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였다.

90년대 초기 영국의 비달사슨 및 일본 동경미용전문학교에 유학을 갔던 유학과 중심으로 비달사슨과 세계의 유명헤어디자이너의 기술과 한국의 토종 기술을 접목하여 한국화한 미용기술을 정립화하여 미용기술도서 및 비디오를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다.

3. 패션헤어의 다양화-토니 앤 가이

토니앤 가이라는 세계적인 미용그룹은 Toni Mascolo, Guy Mascolo, Bruno Mascolo, Anthony Mascolo의 사형제에 의하여 그룹이 결성되었으며, 토니앤가이 그룹에서 추구하는 미용세계를 1984년경에 안소니 마르코스 와 페트 스톱스에 집필되어 Piece by Piece 란 제목의 책으로 선을 보였는데, 책의 커리큘럼을(그림-7.32) 살펴보면 토니앤가이 그룹의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과 헤어스타일을 알 수 있다.

1984년 전부터 토니앤가이에서는 매년 패션의 경향이 이미지의 변화와 함께 생활양식이 끊임없는 변화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미용인으로서의 이러한 미묘하면서도 두드러진 변화를 대중에게 계속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미지의 작업을 직접 하면서 이를 이해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런 자연스런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현재의 스타일을 반영시켜 또 다른 스타일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고, 그 느낌과 입체감이 나타나도록 변화시켜서 헤어스타일을 연출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의 연출적 능력에

의해 하나의 매개체로서 완성된 스타일에 질감을 살짝 변화시켜서 다양한 헤어 연출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토니앤가이에서는 이 원리를 입각하여 패션적인 헤어스타일을 텍스처로 1984년에 발표하였다. 토니앤가이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연출된 헤어스타일이 형클어진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보다는 질감이 있는 마무리 손질을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 더욱 자연스럽고 꾸미지 않은 느낌을 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주로 표현하였고, 어떤 스타일에 있어서도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 적응성이 많으며, 그 결과 커머셜 할 수도 있게 했다. 토니앤가이는 하나의 스타일 단순히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그것이 잘 어울리도록 무제한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추구했고, 미용을 하나의 예술이라 보았다.

그리고 미용은 보는이의 각자의 느낌에 대한 개개인의 표현으로서 취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토니앤가이 그룹에서는 “피스 바이 피스”를 출판하기 위하여 온갖 정열과 관심을 기울여 최신의 멋을 추구하려고 하였으며, 이들의 멋에 보다 더 연관시켜 변형의 자유로움을 강조 하였다.

그리고 아주 간단히 변형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앞으로는 고객이 더 이상 고정된 헤어스타일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변하는 유행패턴과 일치하는 스타일을 한가지 스타일 안에서 항상 변하는 유행패턴과 일치하는 스타일을 한가지 스타일 안에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연출의 멋을 찾을 수 있기를 추구하고 있다.

즉 토니앤가이 그룹은 스타일링에 의한 다양한 연출적 표현을 시대적 흐름에 의해 여러 패턴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토니앤가이의 미용철학 및 텍스처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86년이었다. 원서를 미용재료상을 통하여 전국에 시판하였던 것이 토니앤가이의 명성이 한국 미용사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비달사슨처럼 일본으로부터 일본인에게 리메이커된 도서가 아닌 직접 원서로 국내에 소개 되어던 것이다. 당시 미용사들에게 단순한 면과 단순한 선에 의해 디자인된 비달사슨의 디자인만 보다가, 토니앤가이의 헤어스타일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헤어스타일이 형클어진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보다는 질감이 있는 마무리 손질을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과 더욱 자연스럽고 꾸미지 않은 느낌을 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였는 것이 미용사들에게 현실적으로 간절히 원하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미용사들 뿐아니라 일반여성들에게도 어떤 스타일에 있어서도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 적응성이 많아서, 그 결과 다양한 헤어 연출을 할 수도 있었고, 각 개인에게 그것이 잘 어울릴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미용사들에게 토니앤가이 풍의 헤어스타일이 상당한 인기를 얻어 국내 미용사 및 일반여성들에게 하나의 스타일로 안착하였다. 당시의 미용사들에게는 단순한 면과 선으로 이루어진 것은 비달사슨 풍이며, 웨이브에 의한 스타일은 토니앤가이 스타일이라고 인식할 정도였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토니앤가이의 헤어실기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잎도 많이 소개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국내에서도 토니앤가이 커리큘럼을 미용학원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의 유명 미용실에서도 비달사슨의 텍스처보다 토니앤가이의 텍스처를 더욱 선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통 토니앤가이의 스타일리스트들이 미흡한 관계로 일본이나 영국 비달사슨의 유학한 출신들 중에서 토니앤가이에 수료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직에 종사하는 미용사들에 대한 평가는 실전에는 적합한데 기초교육으로는 비달사슨과 번복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헤어디자이너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러한 것이 토니앤가이의 기술의 바탕이 비달사슨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달사슨에 익숙해져온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이유 때문

에 더욱 한국에서 미용사 및 미용을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국내의 재교육기관이나, 미용학원에서 교육교재로 많이 채택되고 있다..

원서로 소개된 것은 1986년에 유일하며 비디오로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되었다.

		
그림-1 <1931년 7월, <동아일보>는 학생 하기방학을 기해 「브나로드운동」을 전개했다.>	그림-2 <단발령 당시 상투자르는 모습>	그림-3 < 마리-루이스>
		
그림-4 <마셀웨이브>	그림-5 < 시술자; 로망(프랑스.파리)>	

		
그림-6 가와시마 후미오: 작품	그림-7 <PIECE by PIECE>	그림-8 <안악제3호분>
		
그림-9 <「여성」창간호 표지>	그림-10	그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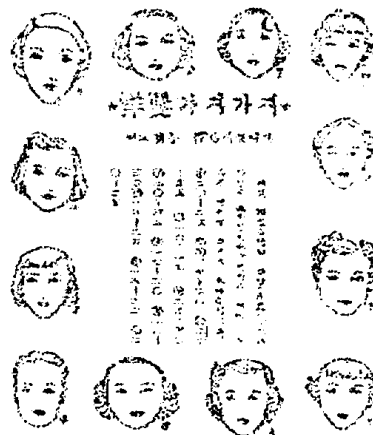


그림-12<아이롱머리>

그림-13 <1940년대 말의 여성의 머리모양.
'부인경향' 1950년3월호>



그림-14<左맨더린라인과 右로코코라인>



그림-16< 소피스타일>



그림-15<60년대의 헤어스타일>



그림-17. The Shape
1959년



그림-18. Nancy Kwan
1963년



그림-19. 1963년
Grace Coddington



그림-20. Five Point
1964년



그림-21. 1964년
The Asymmetric



그림-22. Geometric cut
1965년



그림-23. Acute Angle
1966년



그림-24. A-line Bob
1966년



그림-25. The Halo
1970년

		
그림-26. The Brush 1972년	그림-27. The Beret 1975년	그림-28. Philappa 1976년
		
그림-29. Straight Shake 1977년	그림-30 Isadora 1969년	그림-31 Peggy Moffat 1966년
		
!	!	!

그림-32

		
포워드 1	포워드 2	더블커터 스타일
		
포워드	로니카	코프네쥬털
		
슬랜드	언드커트스타일	라틴의 멋
		
더블 컷 응용 스타일	더블컷 응용 스타일	슬랜드의 응용스타일

그림-33 <평행보브>	그림-34<스파니엘>	그림-35<이사도라>
		
그림-36<머쉬 롬>	그림-37<썸트 멋쉬롬>	그림-38<스텝 보브>
		
그림-39<그라데이션보브>	그림-40<썸트 보브>	그림-41<스윙 뱅그>
		

그림-42<웻 지>	그림-43<레이어드 컷트>	그림-44<롱 포인트>
		
그림-45<리젠트>	그림-46<비비드 컬>	그림-47<엘레강스 컬>
		
그림-48<콘케이브 컷트>	엠파이어스타일	
		

IV 결론

본 논문은 개화기 이후 한국 헤어패션의 변천을 연구하기 위하여 상고시대의 헤어패션부터 조선시대의 헤어패션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화기의 헤어패션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 민족의 헤어패션을 청동기시대의 유물에 의하여 보면 벌써 결발을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 머리모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 당서, 신당서, 수서, 삼국지, 등의 고서와 한국의 해동역사, 삼국사기, 고려도경, 북학의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는 당시 한국의 고대 국가와 중국의 국가와 서로 다른 독특한 머리양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삼국시대로 건너오면서 상고시대의 헤어패션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세련된 헤어패션이 전개되고 있었다. 삼국시대에서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통하여 벽화에 나타난 여인의 머리모양이 신분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백제는 주서와 통전의 기록을 보아 여성들은 혼인에 신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머리모양을 달리하였다. 는 것을 보아 머리양식이 신분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는 수서와 구당서에 의하면 부인의 머리를 땅아서 감아올리고 비단과 구슬로 장식하였는데 머리가 매우 길고 아름다웠다. 하였고, ‘태평어람’에는 머리카락이 아름다우며 길이가 길다. 하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신당서’에서는 남자는 머리를 잘라서 팔고 흑건을 썼다. 시장에서 모든 부녀들이 팔고 산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는 상당히 화려하고 사치한 헤어패션이 유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의 발전을 이룬 것은 신라가 천년의 역사를 이루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안정된 시간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시대의 복식을 그대로 전승되면서 보다 화려하게 변화된다. 그러나 몽고와의 전쟁으로 원에 항복한 고려는 개체변발을 1272년부터 약80년간 궁에 사는 왕족과 신하들 사이에 행하여졌으며, 여성들 사이에는 몽고풍의 가채로 장식한 머리가 유행하였다.

그러다 공민왕 원년에 변발호복을 폐지하고, 본래의 고유한 전통 머리양식으로 환원 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민족정신의 의지라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궁중의 예례용 머리양식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더욱 화려하고, 신분에 따라 다양한 머리양식과 머리 장신구가 존재하였다. 당시 여인의 기본 머리모양은 기혼녀는 얹은머리, 쪽진머리를 하였으며, 미혼녀는 땃기머리를 하였고, 궁중에서 하는 예장용으로 사용되던 머리모양에는 큰머리, 어여머리, 대수, 첩지머리, 새양머리, 등이 있으며 신분에 따라 다양하게 머리모양을 달리하였다.

그리고 개화기는 한국의 헤어패션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가 된다. 개항과 더불어 외국문화가 전래되면서 일본으로부터 프랑스의 미용기술이 도입되었으며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의 등장으로 마샬웨이브가 크게 유행을 하였고, ‘신여성’ ‘모던걸’이라 불리면서 크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증가하여 사회참여가 높아진 것과 해외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헤어패션에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었다.

그러한 것으로 해외로 유학을 다녀온 여성,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애국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해방이후의 헤어패션은 서구의 문화가 급격히 밀려오고 특히 미국 문화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미용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내에 외국의 영화, 잡지의 수입이 증가하고 외국의 인기 영화 여배우들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다.

1960년대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외국의 문화와 헤어스타일이 급격히 다양해짐에 따라 헤어패션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여성들의 의식전환과 헤어스타일에 의한 여성의 미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윤복희의 미니스커트, 비틀즈의 히피적 헤어스타일 등 유명 연예인에 의해 모방 심리로 유행이 예전과 달리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는 국내에 영국의 비달사슨의 스타일이 소개되어 일반대중에게 유행되는 시기가 된다.

그리고 헤어 드라이어가 소개 되면서 컷, 파마, 드라이어에 의한 헤어스타일이 완성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드라이의 등장으로 당시 헤어스타일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은 느낌의 바람머리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1980년대의 헤어 패션의 특징은 1970년에 보다 퍼머에 있어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되며 1986년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국미용도 국제적인 감각에 맞는 헤어디자이너가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의 해외여행 자유화에 이어 1990년대는 미용인들의 해외 유학이 러쉬를 이루면서, 이전까지는 잡지나 영화 속의 헤어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 주종이었다. 유학파들이 귀국하면서 해외 선진미용을 각 전문화된 미용기술과 이론적 바탕에 의해서 창조적인 헤어디자이너와 메이크업, 네일, 염색, 분장, 피부미용, 바디페인팅, 코디네이트, 재교육 컨설팅 등등으로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 1990년 중반 이후 한국미용 각 분야는 질적 양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때까지 외국도서 번역 출판이 되었던 것이, 이들에 의해서 전문적인 미용도서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현대미용사에 획기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사적으로 전개된 헤어문화의 특징을 고찰해보면서, 개화기 이전 시대의 헤어스타일 관념에는 민족적 상징과 머리모양의 동일화에 의해 하나의 민족적 관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에 서구문화가 들어오면서, 개화기 이전의 머리관념

에 크다란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요인으로서는 신분적 제도 철폐와 고종황제의 교육정책으로 여성 신교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현대미용의 머리양식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였다. 또한 사회제도와 경제발전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현대적 머리꾸밈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신문, 잡지, 영화, 및 여성 계몽운동을 통한 대중문화의 전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현대 여성들의 미에 대한 기준은 이전의 동양적 여성체형에서 서구의 체형을 갖춘 여성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사고에 의한 유행은 곧 전통적인 사회에 대한 이질적인 문화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탈적인 행동양식을 가질 수 있는 행동양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보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보다 강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신지식인들인 인텔리들로서 이들의 차별적인 양식과 외양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차별성을 드러내던 행위는 점차 유행되면서부터 차별성은 사라진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대중화된 유행패턴이다.

그리고 현대미용에 유행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친 것은 아마 영화일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서구여성의 헤어패션과 의상등의 이미지에 대한 강한 호기심으로 당시 여성들의 의식을 바꿔놓는 데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극장에서 개관된 국내외 영화에 의해 촉발된 대중들의 문화적 삶의 변화는 단순히 전통문화에 대한 상실감이라거나 서구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라는 비판의 잣대를 넘어서었다. 국내에 상영된 미국 영화는 서구화된 육체, 성에 대한 개방적 관심을 포함한 도시적 삶의 양식을 변모시키는 한편 그것이 여성과 성에 관련된 가치나 도덕을 정향짓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것과 상업적 동기에 의해 추동되어 한국여성의 현대미용의 패션

에 적극적인 성향으로 변해 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서 여성의 화려한 의상과 섹시한 화장 및 헤어연출에 의한 여성의 노출 등을 통한 성의 상품화와 성적 자극이 주류를 이루는 이 시대의 광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식 문화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더욱 그 힘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1950~60년대까지도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의 고정관념에 젖어 있던 여성들에게도 본격적인 현대미용 문화가 전개되어, 국내의 헤어디자이너의 다양화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유행의 흐름이 한국여성에게 널리 파급되었다.

이러한 현대미용의 변화는 이후 21세기에 전개될 한국 미용문화의 발전에 어떠한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의 역사적 의미와 헤어패션을 더욱 정확히 분석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미용의 헤어패션을 분석하고 예측 전망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탄탄한 미용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미용의 본산인 프랑스, 정형화 된 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도 분석과 분석을 거듭하는 일본미용, 고전적인 미의 영국, 문화적 관념이 없어 미용문화에 자유로운 미국, 아시아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중국의 옛 미용문화사 등, 이러한 세계각국의 특징적 미용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정보를 주고 받게 됨에 따라 이 지구가 하나의 일일정보권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외국의 문화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헤어패션의 다양화와 그 유행패턴도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현대미용의 헤어패션의 유형과 패턴 및 유행적 트렌드를 연구 분석하여 한국 헤어패션에 대한 새로운 지침서를 연구 발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고서(古書)>

『동경잡기』	『북학의』	『고려사』
『조선실록』	『발해고』	『동경지』
『조선여속고』	『청장관전서』	

<중국고서>

『사기』	『삼국지』	『해동역사』
『북사』	『후한서』	『수서』
『신당서』	『구당서』	『송사』
『고려도경』	『문헌비고』	『시경』
『남방위』	『한서』	『통전』
『국조보감』		

<국내문헌>

국사교육연구회 『한국사개설』 형설출판사, 1991

김동욱 『百濟의服飾』(부여:百濟文化開發研究院).1985

김병모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출판사, 1998

김영인 편 『현대 패션 100년』 교문사, 2002

김용숙 『이조후기 비빈(妃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아세아여성연구.1966

김춘득 『동서양 미용문화사』 현문사, 2002

김희숙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2000
 고부자 『우리 생활 100년 · 옷』 현암사, 2001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편 『우리옷이천년』 미술문화, 2001
 박민여 외 9명 공저 『현대 패션 100년』 교문사, 2002
 『뷰티웨이 I~V 권』 맥기획, 1980년대 중반경 발행-발행날짜 기록이 없음
 全海宗 『東夷族의 文獻的 研究』 (서울;一湖), 1980
 최석로,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서문당, 2001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대출판부 1982
 이만열 『한국사 연표,』 역민사 이강민(編) 1985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월드뷰티』 한서도서출판사, 1988
 연변박물관 『연변유물략편』 (연변 : 인민출판사), 1989
 『월드뷰티』 한미회출판, 1988
 徐吉旻, 『裝身具史』 (서울:한국장신구연구원), 1986
 『한국생활문화 100년』 장원 1994
 『한국상고사』 (서울;케이출판사). 1989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1998

<외국문헌>

가와무라 미나토, 『기생』 유재순 옮김, 소담출판사, 2002
 『커트완성』 도서출판(주)생경의료택, 1980년 초경(발행년도 기록이 없음)
 무함마드칸수 (1992), 『新羅 西域交流史』 (서울 : 단국대학교 출판부)
 白鳥庫吉 『亞細亞北族の辮髪について』 1928
 『髪のあゆみ』 일본헤어디자인협회 15주년기념 1971
 山野効子 『フロッシング 新技法』 女性モード 1978

『IBA퍼머백과』 도서출판이바(일본번역본) 1993

『IBA컷트백과』 도서출판이바(1991)

日本 파마네트웨이브 액 공업조합 『SCIENCE of WAVE』 신미용출판사, 1994

안소니 마르코로 패트 스톱스 『PIECE BY PIECE』 TONI&GUY, 1984

후미오 가와시마 『WISH YOU WERE HERE』 신미용출판(주), 1995

David Bond(1992), 「20세기 패션」 정현숙(역) (서울 경춘사)

Phyllis Tortora & Keith Eubank(1989). A Surver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

Richard Corson(1965), 서양발형도감 藤田順子(역) (日本 東京 :女性モード)

Turner Wilcox(1979). The Dictionary of Costume(London:: B . T .Batsford Ltd.)

<논문>

김용문 <우리나라의 수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김소희,<동자쌍계고>,(석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권계순 <우리나라女子髮樣考> ,효성여자대학 《연군논문집》 .1966

배정용 < 三國時代 婦女首飾의 樣式에 관한 研究> 《진홍섭 선생 회갑 기념 논문집》 .1978

王乘札<발해정해공주 · 정효공주묘의 발견과 발해사의 연구>,서울대학교 박물관 《 초록집 》 .1990

안현경 <20세기 서구여성의 머리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자료집>

동아일보 1954년 12월

『부인경향』 1950년 3월호

『부인』 1948년 4월호

『신여성』 (1925년 8월호) 개벽사 참조

뷰티라이프 (2003년 2호)

조선일보 “사치성 수입품 소비 증가세 심화” 1996년 4월25일

일본 신미용 1987년 1월 신미용출판사

일본 신미용 1986년 11월 신미용출판사

1961년 11월09일, 법률 제 771호로서 공포, 윤락행위 방지법

『신천지』 1946년 5월호

『조광』 제 6권 10호 조선일보사 1940년

한국헤어변천사 1.2편(VTR) 동아TV 2003년

ABSTRACT

A historical investigation into beauty fashion after the Korean Enlightenment

Kim, Gwang Hee

Major in Make-up Arts

Dept. of Fashion Arts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briefly examines the hair fashion in ancient times,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the Koryo Age, and the Chosun Age in order to study the transition of hair fashion among Korean beauty cultures after the Korean Enlightenment, and examines the hair fashion ranging from the times after the Enlightenment to the 2000s.

This thesis is aimed at investigating how hairstyle among beauty cultures has changed according to ages and how the factors of developing beauty and female awareness of it have changed according to ages.

The decoration of hairstyle traces back to ancient times. The relics in the Bronze Age among ancient times indicated that the mode of whisker and hair already existed. And the mural paintings in the old mounds of the Koguryo Age indicated that women had various hairstyles according to their statuses.

Old books, paintings, murals, relics and so on revealed that Korean nation who founded a country in Manchuria and the Korean Peninsula wore a topknot based traditionally on an equestrian people and that traditionally Korean men wore a topknot and that Korean women wore

hairstyles by pigtail, hair bound in a knot, and beautiful hair. And they also exhibited that costume also changed together with hairstyles in cultural exchange with various countries such as Eui, Ha, Su, Song, Myung, Tang, Chung and the like in ancient China.

And the traces of using wall paintings, a scarecrow made of earth, historic books and ornamental hairpin, a gold crown, a head-cover made of cloth, all kinds of ornaments for hair and so on among the relics in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indicated that they wore more advanced hairstyles than those in ancient times, and that they tended to wear various hairstyles through active trade with China.

Such tendency showed that the hairstyle of Tang prevailed mainly among the aristocrats of Shilla that unified the three kingdoms such as Koguryo, Shilla and Baekje as the country traded actively with Tang. Since Koryo invaded Mongolia, pigtail and Chinese garment, the hairstyle of Won, were in the minority of aristocrats, but they returned to traditional hairstyle immediately after the force of Won was weakened. From the meanings contained in such measures, national traditional hairstyle is a milestone of the existence of a nation-state and the division of nations, the national spirit, and also the symbol for a sense of solidarity among ethnic groups.

Even after Mongolia invaded Korea, a hairstyle imported various cultures in active trade with China, but it was not assimilated with other cultures and developed into the hairstyle based on Korean traditional hairstyle different from Chinese one. Such change of hairstyle occurred together with ornaments and costumes. The hairstyle developed in more various ways in accordance with Korean tradition and the sentiment of Korean nation and continued to develop up until the Enlightenment.

And the paintings and relics in the Chosun Age revealed that the culture of cremating general people was weakened by a Confucian system in Chosun Age compared to the ages before the Koryo Age, but that hairstyle and hair ornaments developed relatively considerably.

However,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Europe and worldwide age

trend in the modern times, Korean hairstyle came to meet a great transformation after Dangun, the founding father of the Korean nation, at the time of the Emperor Gojong in the Chosun Age. The ministers and subject objected to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in the Chosun Age, but bobbed hair was rapidly spread owing to the emperor's educational policies orienting to wealth and military power of a nation and prophets and foreign missionaries' educational projects. French advanced beauty was also spread to women in the Chosun Age and their hairstyles also began to be gradually modernized.

As more and more women were newly educated by means of the educational policies of the Chosun dynasty by such effect, various hair fashions became prevalent in the modern times, and dresses and their ornaments for women also began to be westernized.

The traditional hairstyle of general women gradually began to be changed with the motive that women in the Chosun dynasty went home after they did their Western hair in foreign countries by frequent cultural exchanges with the West after the Enlightenment in the age of the emperor

After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women who accepted modern hairstyle tended to rapidly increase because of rapidly incoming Western culture, and domestic public opinion tended to recommend a short permanent wave with convenient activeness rather than traditional long hair. Such change of social recognition allowed modern beauty to develop more and more. And when UN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movies and magazines in American culture were introduced and the hairstyles of popular actresses in movies were popularly supported and prevailed. As woman magazines were first published and movies were popularized also in Korea after the war, the hairstyles of popular actresses were imitated, became prevalent and had very great ripple effect! .

As Korean economy became active according to a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the 1960s and was in active overseas exchanges after the Korean War, many movies produced in reference

to hairstyles and costumes from abroad together with domestic development of movies greatly affected domestic fashion.

Also in the 1970s, overseas beauty training started thanks to economic development. The hairstyle of Vidal Sassoon, a worldwide beautician, was introduced in Korea and prevailed among general populace. The 1970s was the time when cut prevailed much and which began to set in the age of hair fashion of expressing the individuality of women by the diversification of hair design by cutting. And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llowed the work force of women to be expanded, leading to broadening the range in which women participated in society and were active there.

The overseas trip of Korean people liberalized by the '86 Asian Games, the Seoul Olympic Games, and international events became the motive power with which Korean hair designers were active in such a way as participating in an international hair show. And the boom of studying beauty overseas was on and books on beauty were actively published.

In the 1990s, the tendency became thicker. And as books on beauty were imported from abroad and more people studied abroad, beauty fashion developed further. As the department of beauty was established in a university from 1993 on, the field of beauty began to develop more academically. When the school of having studied abroad came home from the middle part of 1990 on, hair fashion was more diversified. The texture of foreign beauty was introduced centered on styles until that time, but they spread theories of beauty and specialized techniques of beauty and published books on beauty, which allowed domestic beauty to rapidly develop.

In 2000,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gave birth to the information revolution and communication revolution of the Internet. And there also occurred a great change in the beauty industry. The information of the world became narrow by synchronized information, and the pattern of worldwide fashion got shorter. The beauty fashion industry tended to be more diversified and subdivided. The factors by which hair fashion changed this

chronologically resulted from the necessity of pursuing beauty felt by women as their active social activity increased on an age-by-age basis because of women's increased education and developed domestic industry after the Enlightenment and the propagation of popular culture through newspaper, magazine, movies, television and the Internet. And I can understand that Korean beauty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into an equivalent to foreign advanced beauty technology as the result of pursuing the scient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Korean beauty by former and present beauticians' passions and efforts towards learning advanced technology after the Enlightenment.